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89호

Tuesday, August 13, 2024 A

## 원섭 얼-시어즈 부지사 vs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 VA 차기 주지사 놓고 부지사·검찰총장 신경전

### SPECIAL STORY

오는 2025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현직 부지사와 검찰총장을 일찌감치 사실상의 당내 경선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버지니아는 주지사 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글렌 영킨 주지사는 초선이기 해도 2025년 재선에 도전할 수 없다. 공화당에서는 원섭 얼-시어즈(사진 왼쪽) 부지사와 제이슨 미야레스(사진) 검찰총장이 차기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공공연하게 선거유세를 벌이고 있다.

얼-시어즈 부지사는 최근 버지니아 서부 샬롯츠빌 주변 지역을 공화당 당원들을 상대로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는 공식적으로 출정식을 갖지는 않았지만, 최근 대중연설을 통해 “버지니아 주민들은 내가 2025년에 다시 부지사 선거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나는 주지사



출마를 위한 탐색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이달 초부터 현재 버지니아 17개 지역을 방문하며 공화당 지지자 모임을 개최하고 사실상의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얼-시어즈 부지사는 “주지사 출마를 위한 탐색작업이란,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는 과정이며 결심을 하기 직전 단계”라면서 “탐색작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야레스 검찰총장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경선전에 뛰



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공화당이 작년 총선거에서 참패하긴 했으나 영킨 주지사가 메이슨-딕슨 여론조사에서 58%가 넘는 지지율을 얻는 등 공화당 행정부에 대한 지지세가 강력한 만큼, 영킨 주지사의 후계자를 자임하는 부지사와 검찰총장이 모두 주지사 선거 도전에 욕심을 낼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핵심 관계자들은 두 주자가 조기에 출마를 선언할 경우 공화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선 과열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공화당 이니 씨클에서는 두 주자가 최소한 올연말까지는 출마선언을 하거나 유세를 다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야레스 검찰총장 진영에서는 얼-시어즈 부지사가 먼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조기에 경선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예비게일 스펀베르거 연방하원의원(민주, VA제7지구)이 일찌감치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오는 11월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불출마했다. 유력한 경쟁자였던 레바스토니 리치몬드 시장(민주) 출마 계획을 접으면서 스펀베르거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700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모금해 기선잡기에 성공했다. 김욱재 기자

### 한인 연방 판사 탄생 뉴욕주 백규영 판사



또 한 명의 한인 연방 판사가 탄생했다.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규영(Kyu Young Mike Paek·사진) 판사가 연방 상원의 인준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선임 판사는 앞으로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파산관련 케이스를 다루게 된다.

6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백 판사는 UT오스틴 대학을 거쳐 포드햄 로스쿨을 나왔다. 포드햄 로스쿨 졸업 후에는 검임교수로 있으면서 파산법을 가르쳤다. 그 후 뉴욕의 대형 로펌 쉐리 로스 앤 자벨에서 파산법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수석 서기로 근무해왔다. 토니 채 기자

## IRS, 적체 ERC 처리 본격 재개... “속도 낼 것”

처리 순서 기준 접수일자 아닌 부정청구 가능성 낮은 것부터



으로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빠른 처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최근 5만 건의 청구에 대해서는 처리 후 환급을 진행하고 2만8000건에 달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부정청구로 지급을 거부하는 등 ERC 처리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IRS가 공식적으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처리 순서는 접수 일자가 기준이 아닌 IRS에서 분석한 위험도에 따

라서 부정청구 가능성이 낮은 신청 건부터 처리한다고 전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ERC는 가장 복잡한 세금크레딧 중 하나고 IRS는 부정청구를 가려내기 위해서 줄곧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최근 ERC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납세자들이나 이미 받은 사업주들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IRS의 요청이 많다”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원전 냉각탑 화재 비상 1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장악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탑 중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핵 테러’를 했다고 비난했고, 최근 개전 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 중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반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화재가 원전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양측에 공격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AFP=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아가 플랜지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 대선 출마 가능성 50%→51%로 ... 오세훈 “역할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터뷰를 한 날은 지난 주말 10일. 그가 페이스북에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의지를 SNS에 올리기도 전 날이었다. 오 시장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서울은 올림픽 관련 인프라가 대부분 확보돼 있어 돈이 추가로 많이 들지 않고, 프랑스 파리와는 달리 국민의 올림픽 개최 찬성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위원장 등으로부터 매우 우호적 반응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오 시장은 파리 올림픽 시설들을 현지에서 둘러보며 “성공적으로 서울올림픽을 치를 구상을 다 마쳤다”고 했다. 사실 오 시장에 듣고 싶었던 얘기는 올림픽보다 다음 대선이 었다. 최근까지도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에 나설 확률은 50대 50” (서울시장) 임기 절반 안 됐는데 대선 얘기를 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관철해왔다.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이날 오 시장은 자신 한 듯 “임기 반환점(지난 7월 1일) 이 지났으니 이제 조금 진전된 말씀을 드리겠다”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문지기는 주인공이든 아니다 표현에선 후자(주인공)로 기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력 경쟁자인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상대적으로 행정은 내가 훨씬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가 판을 치는 현실이지만 “다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그런 게 아니라 ‘포용’의 리더십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인터뷰는 한남동 공관에서 3시간가량 이어졌다.

**서울올림픽 100% 흑자 자신**  
-파리 올림픽 열기가 예상보다 뜨거웠다. 2036년 서울 올림픽은 가능하다 본다.  
“88올림픽 때 만든 시설이 많고, 잠실주경기장까지 이미 리모델링 중이라 유지만 하면 100%

흑자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 선수촌 아파트 건립이 유일한 과제인데, 임시로 쓰고 분양하면 되니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파리를 올림픽을 보며 힌트를 많이 얻었다. 앵발리드 광장에서 양궁 시합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센 강보다 훨씬 수질 좋은 한강에서 수영 경기, 비치발리볼도 가능하다. 하계올림픽을 두 번 이상 치른 국가가 6곳인데, 대부분 50년 간격이었다. 우리도 1988년 이후 48년 만이니 명분이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강력한 경쟁국이다.”  
-2036 올림픽 개최지는 언제 결정하나.  
“내년 말 아니면 내년 봄이 될 것 같다.”

**이재명 후보 가능성 50% 안 돼**  
-한동훈 대표가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된 걸 어떻게 해석하나.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것이라 본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 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보나.  
“그 가능성은 50%가 안 될 것으로 본다. 사법 리스크가 현재 화되는 순간 많은 대안이 나올 것이다. 그게 불안해서 지금 저렇게 1인 사당화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귀책사유는 이재명의 몫이 되고, 많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찬성하나, 반대하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 당의 주류 지지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다른 범지도 아니고 선거범죄였다.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였다. 또 김 전 지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자백을 한 적도 반성의 말을 한 적도 없다. 그런데 복권까지 시켜 다시 정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게

지지자들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대선 출마 의지는 아직도 50대 50인가.  
“임기 반환점이 지났다. 이제 조금 진전된 말을 하자면,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데 기여를 해야겠다. 어떤 역할이건 하겠다. 김구 선생님이 옛날에 임시정부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 평생 우리 정부의 문지기로 족하다’란 표현을 쓴 게 기억이 난다. 내 역할이 문지기 역할이 됐건 주인공 역할이 됐건 어떤 역할도 마다치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엉망으로 하는 걸 봤을 때 그들이 집권하게 되면 이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50대 50이던 게 51대 49로 된 거로 봐도 되겠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니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웃음)”  
-자, 그렇다면 한동훈에는 없는 오세훈의 경쟁력은 뭐라고 보나.  
“난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포용과 통합을 강조해왔다. 흠어진



“문지기건, 주인공이건...” 임기 반환점 지나 입장 진전  
한동훈에 없는 나의 경쟁력? “행정은 내가 훨씬 잘할 것”  
차기 지도자의 시대정신은 포용의 리더십, 약자와의 동행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 있을 수도

보수의 힘을 한곳에 모아 확장해야 한다. 그래서 난 통합의 리더십, 확장 가능성이 큰 정치를 지향해 왔다. 인간은 실존적으로 감각의 존재이므로 경험치가 무의식적으로 사고와 판단을 지배한다. 윤석열-한동훈은 주로 수사의 영역에서, 오세훈은 주로 종합행정의 영역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성장해 왔다. 아마도 이 지점에 차별점이 있을 것이다. “동의를 할 수 없다. 그걸 없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다. 외국 사례도 없다. 한 대표도 (그런 입법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길 바란다.”  
-한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공약하는데, 선거법을 바꿔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당사자로서의 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 그걸 없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다. 외국 사례도 없다. 한 대표도 (그런 입법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길 바란다.”  
**‘파이터’ 돼야 하는 슬픈 현실에 고민**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포용의 리더십’을 꼽은 이유는.  
“포퓰리즘과 팬덤 현상의 위기는 포용의 리더십만이 그 출구

를 제시할 수 있다. 한국 같이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수준의 나라들이 공통으로 겪는 정적, 경제적, 지위적 양극화는 희생과 포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극복하지 못한다. 국민소득도 5만, 10만 달러로 나아가지 못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을 일궈낸 이들일수록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성공이)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밤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들은 많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감사하고, 경쟁대열에서 뒤쳐졌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약자를 포용하고 동행하는 정책을 찾는 것이 시대정신이라 믿는다.”  
-팬덤 정치가 뉴노멀이 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한국 정치의 대세는 파이터다. 이 파이터가 다른 파이터를 때리고 그 과정에 팬덤이 생겨나고 이 팬덤이 다시 파이터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한국 정치에선 흠이 안 되게 된 게 더 큰 문제다. 파이터의 세상이 됐는데, 정치적 승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사회,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되는 순간 나도 파이터로 변하게 된다. 그게 제일 슬픈 거다. 사실 (선거 전) 6개월 열심히 상대방을 때리고 투쟁적 언사를 내놓으면 된다. 하지만 그런 전략이 옳은 것인지, 늘 합리성을 추구해 온 나마저고 민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청계천보다 ‘일상 혁명’으로 승부**  
-서울시가 도입한 9988 손목달 터운동이 선풍적인 인기인데.  
“도입하자마자 1000만 서울시민 중 120만 명이 가입했다. 걷기 습관이 없던 분들이 다 지금 걷고 있다. 하루 8000보에 200원의 포인트를 주는 게 위력적이다. 노인질환의 원인인 당뇨병·대사증후군 등의 개선이 3~5년 후 통계적으로 입증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

버스전용 차로에 필적하는 업적으로 ‘일상 혁명’을 주창하는데.  
“이제는 우리 생활 바로 곁에 있는 일상의 혁신이 중요한 시대다. 월 6만5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도 이제 거의 매일 50만명이 쓰면서 20년생 나무 11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얻고 있다. 난 그런 소프트웨어 혁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의 행정 콘텐츠 발전 인상적**  
-우리 사회의 특권, 세습세력에 대한 반감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나 또한 유복하게 자라지 못해 성장기에 결핍, 좌절이 있었다. 다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결핍은 사람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재벌이 뭐 예뻐서 그들에게 재량을 주고 상속에 허용하겠는가. 상속에 허용하되 충분히 그들에게 받아내고 이용하면 된다. 무엇이 국민복을 위해 기여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된다. 다만 우리 사회의 무한 경쟁이 합리화되려면 포용,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 없이 승자독식을 한다면 많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중국에 다녀왔는데, 어떤 변화를 느꼈나.  
“베이징 공항 면세점의 80%가 문을 닫았다. 분명히 경기 침체다. 다만 각종 행정 서비스나 여러 분야의 콘텐츠가 눈에 띄게 발전한 게 인상적이었다. 현지 기업들을 만나보니 양국 정부 간 관계 개선을 절실히 원하더라. 접촉면과 빈도를 늘려야 할 것이다.”  
-미국 대선 이후를 어떻게 예측하나.  
“특히 복핵 문제 대응에 있어 우리의 잠재적 핵 능력을 적어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7~8년 전부터 해왔는데, 다음 출범할 미 정부에 이런 주장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김현기는설위원

**워싱턴 날씨 (°F)**

14일(수)	85~66	17일(토)	87~72
15일(목)	87~66	18일(일)	86~72
16일(금)	89~68	19일(월)	88~71

8월 13일(화) 85~65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SOLD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 You 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 구글 스마트 쇼핑 |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 문자마케팅 | 유튜브광고 | 소셜미디어 | 웹사이트 제작 | 온라인 쇼핑물 | 이메일 마케팅

# 재미대한태권도협회 이취임식 신임 권기문 회장 “협회 위상 강화에 전력”



제22대 재미대한태권도협회 권기문 회장이 취임했다.

11일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이취임식에는 협회 소속 임원 및 내빈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기원 미주 사무소 유치 및 협회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대도시 위주인 재미 대한 태권도 협회 지부를 전국 소도시 통합 지부 위주로 대폭 늘려, 협회의 양적,

질적 강화를 꾀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권 회장은 “미국 태권도계에서 한인 사범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60세인 권기문 신임 회장은 1981년부터 4년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아시안 챔피언, 세계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다.

1990년 도미한 이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 왔으며,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 미국 태권도 유니버시아드 대표팀 감독 등을 역임했다.

3년 전에는 버지니아 아웃릿지에도 ‘월드 태권도 챔피언 도장’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취임식(준비위원장 김유진 전 DC체육회장·사회 공대식 협회 전무이사)은 이재현 전 회장의 임사로 시작됐다. 신임 권 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한 이 전 회장은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권기문 회장은 이강일 수석부회장, 김재영·김양식·이수봉·김유진·양광철·최창익 부회장, 공대식 사무총장, 김영희 상임고문 등 총 25명의 신임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22대 협회 출발을 알렸다.

박세용 기자

## 성매매 알선 혐의 한인 기소

뉴욕·뉴저지 최미연 등 4명  
7년간 불법 마사지숍 운영

뉴욕·뉴저지에서 불법 마사지숍을 운영한 혐의로 한인을 포함한 4명이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37세 한인 최미연 씨와 중국 국적의 피아오 제준(37), 상첸 추이(36), 진 메이상(34) 등 4명이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불법 마사지숍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마사지숍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성행위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피고인들은 2017년 5월부터 불법 마사지 팔러 넷 워크를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소유, 운영하는 불법 마사지숍은 뉴욕 뉴로셀의 뉴 수딩 데이스파, 뉴저지의 코코스파(패터슨) 등이다.

이들은 지난 8일 체포돼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했고, 이후 추가 절차

가 진행되는 동안 석방됐다. 피고인들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연방 수사관들은 기소 전 4명의 공동 소유주 모두 사업체들이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불법 제공한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활동에 관여했다는 증거로 최씨가 성매매 광고 제작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이메일 초안과, 최씨와 피아오 제준, 온라인 광고 회사 사이의 암호화해 거래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상첸 추이가 구강 청결제와 종이 타올 등의 물품을 스파로 운반하고, 진 메이상과 현금 5만 달러 이상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마사지숍에 고객인 척하고 잠입하기도 했는데, 업체 측에서 이들에게 “160달러 현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 ‘바이든 학자금 탕감’ 중단 항소 법원이 또 연장 판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다시 한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의회전문 매체인 더힐은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구제안(SAVE)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향후 수개월 동안 SAVE 플랜의 법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많은 대출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더힐은 전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바이든의 SAVE 플랜에 대한 법적 논란이 지속

되면서 내려졌다.

미주리주 등 7개 주 정부와 단체들은 바이든의 대출 감면이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실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해 온 대출자의 경우 남은 부채를 자동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행정 조치는 대출자의 월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 최소한의 상환을 허용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의 상환 기간도 단축시킨다. 연방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출자들은 상환 금액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연희 기자

## 출산보조금 1천달러가 ‘위헌’?

MD 볼티모어 순회법원 판결

메릴랜드 법원이 볼티모어 시의 출산보조금 지급을 위한 주민투표 회부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순회법원의 존 뉴전트 판사는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같은 주민투표 회부안이 헌법과 법률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 메릴랜드 아동연맹은 1

만명 이상의 청원을 받아 아이를 출산할 경우 1천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회부안을 제출했다.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주민투표에 회부해야 하지만, 브랜던 스콧 시장은 “이 주민투표 회부안이 주민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 행정기관의 권위를 뛰어넘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미시간주 플린트 등 지역정부가 임

신 중기에 1500달러, 출산 이후 1년 동안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는 출산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플린트의 이같은 정책은 지역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였다.

메릴랜드 아동연맹은 “지역정부가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상황에서 지역단체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많은 노력 끝에 주민투표 회부안을 성사시켰는데, 지역정부가 격려하는 커닝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메릴랜드 대법원에 상고해 누가 옳는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오미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니즈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SPANISH 가능하신 코디네이터  
F/P Time (571) 297-4747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9/9~9/13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 “올림픽 출전 행복했다”

브레이킹 미국대표 서니 최  
메달 좌절에도 얼굴에 미소

미국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수 서니 최(사진)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된 브레이킹 공연을 마쳤다.



서니 최는 9일 프랑스 파리의 콩 코르드 광장에서 열린 브레이킹 여자부 경기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를 기록했다. 조 상위 2명에게 주어지는 8강 진출 티켓을 따내지 못했지만, 경기를 끝낸 서니 최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경기가 끝난 뒤 만난 서니 최는 “아마 제 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행복하다”며 “이런 기억을 안고 귀국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서니 최는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 전부터 화제를 모은 선수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을 나온 수재로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부사장을 역임했다.

1988년생인 그는 이번 대회 브레이킹 여자부 경기에 나온 17명 가운데 세 번째로 나이가 많은 선수였다. 대학교 1학년 때 브레이킹을 접했고, 이번 올림픽에 나오기 위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둔 열정이 대

단했다. 그는 브레이킹 종목에 대한 자부심도 가득했다. 이 종목은 다음 올림픽인 2028년 LA 대회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 종목이 계속 올림픽에서 열려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일종의 트리아아웃과 같은 부담감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 보신 분들이 다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림픽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도 그만뒀다는 사연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에 전념하려고 그러느냐’고 짐짓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었다.

서니 최는 미소 띤 얼굴로 “내년 봄에 뉴욕에 댄스 스쿨을 열려고 한다”며 “피트니스와 커뮤니티 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아름다움 디자인”… 한인 뷰티업소 인기폭발

한국 뷰티산업·스타 패션에  
한인 섬세한 솜씨 더해 인기

한인의 손기술에 타인종들이 반했다.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손기술을 요하는 미용실, 영구화장문신, 네일숍 등에 비한인 고객이 크게 늘고 있다.

LA한인타운에 있는 미용실 관계자들은 백인, 필리핀, 히스패닉 등 타인종 손님이 고객 비중이 10명 중 3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젊은 타인종들이 많다. 섬세한 손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구화장 문신의 경우, 타인종 고객 비율은 40% 정도다. 한인이 운영하는 네일숍도 절반이 타인종 손님이다. 뷰티업계 관계자들은 한인 뷰티의 빠른 성장 배경으로 ▷K팝·K드라마의 인기 ▷한인들의 뛰어난 손기술 ▷맞춤형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등을 꼽았다.

#### ◆미용실

한인타운 미용실에는 타인종 고객들로 북적거린다. 티파니 신 아틀리에 바이티파니 원장은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연예인들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K팝 아이돌의 화려한 헤어 스타일을 따라 하고 싶어 하는 10대 고객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펌리스트들을 많이 찾는다. 그는 “한인 미용사들은 다양한 모발 상태에 맞는 맞춤형 펌 스타일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LA한인타운 아틀리에 바이티파니의 제임스 윤 부원장이 타인종 고객의 머리를 자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중국계 손님의 눈썹 영구화장을 시술하고 있는 사론 퍼머넌트 메이크업의 사론 여원장.

김상진 기자, [업체 제공]

웨이브와 풍성한 볼륨을 연출하는 데 강점이 있다”며 “이러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타인종 고객이 증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영구화장문신

영구화장문신 업소를 찾는 타인종들의 발길도 부쩍 늘었다. LA와 부에나파크에서 솜을 운영 중인 사론 여사론 퍼머넌트 메이크업 원장은 “한인 뷰티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타인종 고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눈썹과 아이라인 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매장을 찾은 한 고객은 “다른 솜에서 눈썹 문신을 한 뒤 원하지 않는 눈썹 모양으로 인해 상심했던 차에 이곳을 찾았다”며 “개인의 얼굴형, 비율, 이목구비에 맞춰 섬세하게 디자인해주는 실력에 감탄했다”고 전했다.

#### ◆네일숍

전다정 언니네일 원장은 “한인들이 손재주가 좋아 원하는 디자인을 똑같이 구현해 내기 때문에 단골이 많다”고 강조했다.

조앤 홍 조아네일 원장은 “컬버 시티와 웨스트 할리우드에 거주하는 비한인 고객들이 30~40분 거리를 마다치 않고 네일아트를 받으러 방문하고 있다”며 “큐빅을 포함한 다양한 보석 네일과 독창적인 디자인의 네일아트 등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한인 솜을 많이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주주박 주주네일 원장은 “큐티클 제거, 핸드타월, 마사지, 오일 등의 서비스에 별도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비용이 합리적인 것도 타인종 단골이 많은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하은 기자

### “경합주 한인 35만, 대선 판도 바꾼다”

한인 민주당 리더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해리스를 지지하는 한인모임(KAH)’이 8일 정식 출범하고 투표일까지 집중적인 자원봉사와 모금 활동 전개를 다짐했다.

부지사부터 패션회사 대표까지 전국에서 250명이 참가한 이날 온라인 모임에서는 90분 동안 2만 달러를 모금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가주에서는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 데이비드 류 전 LA시의원, 제인 김 전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태미 김 어바인 부시장, 폴 서 팔로스버디스시의원, 스티브 강 한인민주당협회 이사장 등이 참가해 힘을 보탰다.

한인 최고 선출직인 실비아 루크 하와이 부지사는 “분열과 차별의 상징이 된 트럼프로 인해 미국은 큰 상처를 입었으며 지금은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미국의 영혼을 다시 찾아올 시간”이라고 강조하고 “인종, 성, 커뮤니티 출신에 상관없이 옳은 것을 위해 투표하는



8일 해리스 지지 한인모임 온라인 행사 참석자. 왼쪽부터 실비아 루크 하와이 부지사,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 나디아 벨킨 해리스캠프 아태계 디렉터,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 패티 김 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방 상원에 도전 중인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뉴저지)은 “지난 대선 때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전화해 축하해주

며 당시 와병 중이던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와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며 “무려 30분 동안 통화하며 가족을 지키는 아들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우

리가 왜 정치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봤다”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6일 54%의 득표율을 보이며 예선을 통과한 매릴린 스트리랜드 연방하원의원(워싱턴)은 “지난 2020년 선거에서 미국인 중 8000만 명이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텍사스, 필라델피아 등에서 많은 한인들이 투표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며 “특히 2세대들이 1세 어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자”고 권했다.

최인성 기자

# DARCARS®

## LEXUS OF SILVER SPRING





###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 투자 선호 1위, 전연령층서 부동산 → 주식 역전

## 한인들 '전국 한인 경제실태 조사' 분석

③ 투자현황과 노후대책

리스크 감수 늘어... 20·30대 30% 넘게 투자  
최고 희망 투자처 3년 전과 동일한 부동산  
"노후대책 있다" 업종별로 2.5배까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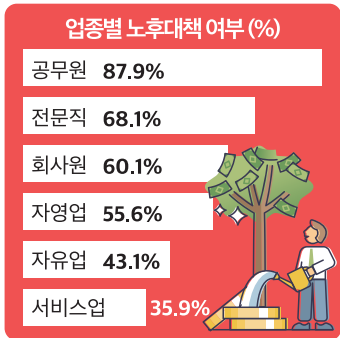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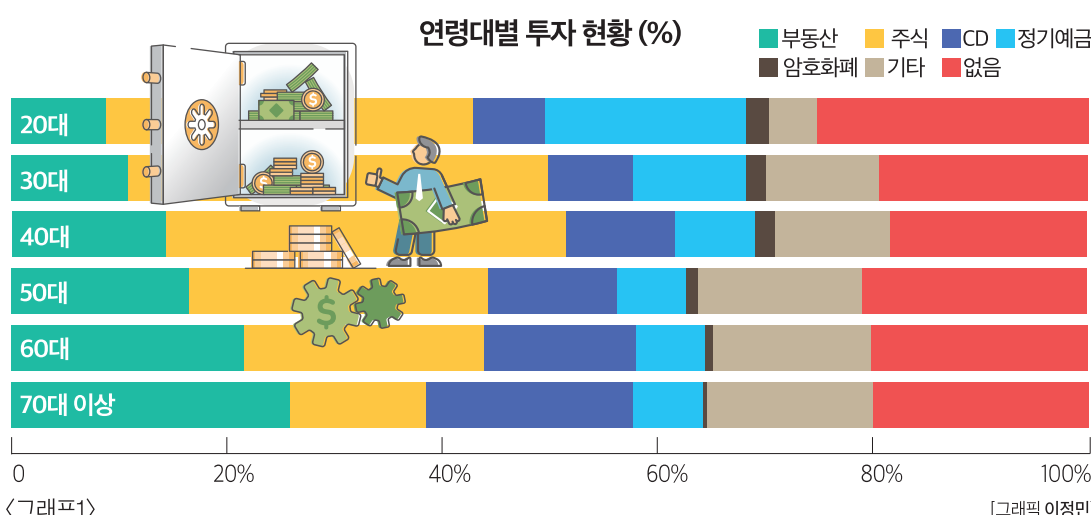
한인들이 현재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분야가 3년 만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투자 여력만 된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정성이었지만 30대와 40대가 위험을 감수하는 공격적 투자 성향을 보인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식 투자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집값이나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은퇴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한인도 늘어났다. 본지가 실시한 '2023 전국 한인 경제 실태 조사'의 결과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한인 5016명이 참여했다.

2020년엔 주식 1순위 투자처라고 답한 비율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23.2%와 29.7%였다. 작년 조사에서는 34.1%와 39.0%로 3년 전 조사치를 훌쩍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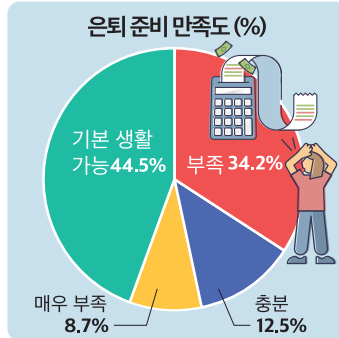
30대 이하의 주식 투자 열풍은 한인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CNBC가 2023년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 중 63%가 주식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믿음이 젊은 층을 주식 투자로 이끌었다.

양도성예금증서(CD)에 투자한다는 답변도 많이 늘어났다. 2020년에 비해 5%포인트 이상 오른 12.7%의 한인이 CD가 1순위 투자처라고 말했다.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만기에 따라 다르지만 높은 이자율이 5%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기예금은 13.0%에서 7.1%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0.4%에서 지나지 않았던 암호화폐의 비율이 3배나 뛰어 1.2%가 된 것도 주목된다. 채권, 금, 보험상품, 뮤추얼 펀드, 머니마켓 등에 투자한다는 기타의견도 있었다.

▶**희망 투자처 역시 부동산**  
복수응답이 가능했던 희망 투자처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0명 중 7명(71.1%)에 달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주식은 51.3%로 2위였다. 이는 투자 여력이 적어 비교적 소액으로 가



〈그래프2〉



〈그래프3〉

능한 주식, CD, 암호화폐 등에 투자를 한 한인들도 여유자금이 충분하다면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싶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주식을 투자 1순위로 꼽았던 2·30대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50·60대보다 높았다.

2020년 조사에서 9.9%였던 CD에 투자하고 싶다는 응답은 2023년 27.6%로 경중 뛰면서 3위였다. 그 뒤는 정기예금(20.4%), 채권(16.8%), 뮤추얼 펀드(12.4%) 등이 뒤따랐다. 금에 투자하고 싶다는 응답은 2020년 25.0%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12.0%로 반 토막 났다. 팬데믹 시기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았던 금의 인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30·40대 공격적 투자**  
투자할 때 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금보

장도 같은 안정성으로 드러났다. 절반을 넘는 55.7%의 응답자가 안정성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답했다. 수익성은 30.3%로 2위였다.

2012년과 2020년 조사에서도 안정성은 1위였는데 이는 금융 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안정성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은퇴자가 대폭 늘어나는 등 한인사회가 고령화 단계로 진입한 것과 관계가 있다. 50대 이상에서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대답이 평균치보다 높았다.

반면 30대와 40대는 수익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비율이 38.7%와 38.4%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대답도 높긴 했지만, 전체 평균을 10%가량 밑돌았다. 은퇴연령과는 거리가

(51.8%), 소셜 연금(32.8%), 보험(32.5%), 은행예금(27.6%), 부동산(24.3%), 주식(20.1%)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한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퇴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대비 매우 부족 크게 줄어**  
은퇴준비에 대한 만족도는 3년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래프 3〉 2020년에 21.3%였던 기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이 절반 이하인 8.7%로 줄어들었다. 부족하다고 충분하다는 응답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기본생활은 가능한 정도라는 비율은 3년 만에 35.5%에서 44.5%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은퇴 계좌 등이 불어났고 한인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치도 크게 오른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2023년 연금 제공 업체인 피델리티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은퇴계좌 잔액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100만 달러 이상의 잔액을 가진 계좌의 수도 전년 대비 11.5%나 증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2022년 팬데믹 시기 은퇴자들을 다룬 기사에서 "주식과 주택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예상보다 이른 나이에 은퇴한 사람이 많다"며 이런 경향을 소개했다. 실제로 주거 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게재한 본지 기사(8월 8일 경제 2면)에서도 한인들의 주택 가치가 크게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연금이나 부동산 같은 한인들의 주요자산 가치가 불어나 은퇴 후 기본생활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조원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유사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사건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 언론 대응능력·경제·중동사태... '해리스 상승' 막을 5개 복병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의 상승 동력을 선거 당일까지 이어가려면 극복해야 할 5개 주요 과제가 있다고 미국 언론이 평가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2일 기사에서 첫 번째 과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원고 없이 언론을 상대할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2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로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마지막 공식 인터뷰는 출마 전인 6월 24일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2주년을 맞아 MSNBC에 출연한 것과, 사흘 뒤인 6월 27일에 CNN과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TV 토론 참패를 방어한 것이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8일 기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첫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9일 시작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통령 후보인 팀 윌스 미네소타 주지사과 공동 인터뷰를 하는 방안이 논



워싱턴DC의 친팔레스타인 시위

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주류 방송이나 신문과의 인터뷰가 대선 승리에 필요한 경험주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폴리티코는 해리스 부통령이 2021년 6월 NBC 인터뷰에서 왜 남부 국경을 방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압박 질문을 받았으며 이후 지지율이 하락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과제는 경제와 물가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중산층을 강화하고 물가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경제 성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격차를 좁히고 있고, 처음으로 앞서서는 조사도 나왔지만,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대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폭락했던 증시가 다시 안정을 찾긴 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민의 근본 원인인 중미 국가의 가난과 범죄를 줄이는 과제를 맡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공화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국경 차르'라고 부르며 불법 이민 문제가 지금처럼 커진 게 그녀의 책임이라고 공격한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올해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추진했던 국경 강화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법 성과가 될 것을 우려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부결됐다는 비판으로 반격을 피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가짜지구 전쟁과 이스라엘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 분열을 네 번째 과제로 꼽았다.

아랍계 미국인 등 친팔레스타인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팔레스타인에 더 우호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비판을 거두지는 않고 있다.

활동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지난 7일 미시간주 유세 때 구호를 외치며 연설을 방해했으며,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도 계획대로 시위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현 중동 정책을 유

지할지, 아니면 이스라엘 군사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아랍계 미국인과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할지 주목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마지막 과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열한 인신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상대했을 때와 같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으며 인종과 성별 관련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도계 흑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인종 정체성을 문제 삼았으며, 그녀가 부통령이 된 이유는 흑인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공격을 펼치고 있다.

이런 공격은 주요 이슈에서 관심을 빼앗고 방어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데 민주당은 2016년 대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해리스 선거캠프와 민주당은 이런 공격을 비난하면서도 싸움을 키울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움 된다고 보고 방어보다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 백악관 “러의 키이우 공격에 북한 미사일 포함 보도 확인 못해”

미국 백악관은 12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한 러시아군 미사일에 북한산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격받은 러시아 국경 지대 쿠르스크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에) 연관됐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최근 수개월 동안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공격용으로 사용한 것을 목격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것과 별개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북한의 공격 무기를 이용하려는 그간 노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푸틴은 현재 군사 보급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푸틴은 현재 수출 통제와 제재로 군사적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란과 같은 나라들에 손을 뻗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우크라이나뿐 아

니라 역내 전반에 위협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커비 보좌관은 “북러의 급증하는 군사적 밀착은 우리의 국제적인 집단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할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과 함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기습 본토 공격에 대응해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키이우 근교 브로바리 지역의 폭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졌으며,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에는 북한산 4기가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 미국인 5명 중 셋 “경제 이미 침체”...일각 ‘바이브세션’ 규정

미국인 5명 중 3명은 미 경제가 이미 침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 방송이 전자결제업체 어텀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어텀이 지난 6월 20~24일 미국인 2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미국 경제가 현재 침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배경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6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돈 문제로 불평을 많이 한다는 응답도 50%로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일반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작년 3월부터 미국이 침체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여겼다.

작년 3월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5% 언저리에서 높게 유지되고 있던 시기였다.

또한 현 침체 상황이 내년 7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낼 경우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한다.



캘리포니아의 한 슈퍼마켓 진열대

미국의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은 1분기 1.4%, 2분기 2.8%(속보치)를 나타낸 점을 고려하면 2분기까지 경제 상황은 기술적 침체 진입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하지만 다수 일반 미국인은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 탓에 체감상 이미 미국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실제 미국 경제 상황 간의 단절 현상을 ‘바이브세션’(vibecession)이란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바이브세션이란 ‘분위기’(vibe)와

‘침체’(recession)의 합성어로, 경제 상황에 관한 국민의 비관적인 인식 때문에 실제 경제 상황과는 별개로 사회 분위기가 상징적인 침체 상태에 들어갔음을 가리키는 용어다.

2022년 경제 콘텐츠 크리에이터 카일라 스캔론이 자신의 저서와 콘텐츠에 처음 사용한 뒤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JP모건의 조이스 장 글로벌 리서치 부문 대표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바이브세션’(vibecession)에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지난 몇 년간 재산 증식이 주태소유자와 소득 상위층에 집중된 반면 인구 중 3분의 1은 이 같은 재산 증식에서 소외됐다”며 “단절이 발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테라 파이낸셜그룹의 진 골드만 최고투자책임자는 “저소득층은 (오르는 렌트비 등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게 좋아 보이지만 속 안을 들여다보면 가진 이들과 가지지 못한 이들 간 격차가 급속도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집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최적의 집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검토를 통해 최고의 집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승경호 추천 매물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red;">상가 임대수입</p> <p style="font-size: 0.8em;">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red;">상가 임대수입</p> <p style="font-size: 0.8em;">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SF 북송, 월순수입 \$11,000</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red;">스시 식당</p> <p style="font-size: 0.8em;">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red;">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단독건물</p> <p style="font-size: 0.8em;">K-Market 건너편 2500 SF, 식당이나 커피샵, 맥주 전문점 하면 좋은자리 임대 료의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red;">상가 임대수입</p> <p style="font-size: 0.8em;">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red;">상가 임대수입</p> <p style="font-size: 0.8em;">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입 52만불, 8백만불</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red;">Beer &amp; Wine Shop</p> <p style="font-size: 0.8em;">35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임대계약</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red;">DC 유명 델리</p> <p style="font-size: 0.8em;">판매가 55만불 주인없이 운영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red;">Beer &amp; Wine Shop</p> <p style="font-size: 0.8em;">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red;">버지니아 상가건물</p> <p style="font-size: 0.8em;">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입 \$218,000</p>	

주재원, Start-up 회사, 한국공기업,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전문부동산 다량의 기업 성사 기록보유,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79주년

# 8.15 광복절

## 경축행사

대한민국의 "국권"을 되찾은 날, "광복" 그 날의 기억을 되새기고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광복" 그 날의 기억을 되새기는 자리에 우리 한인 동포들을 초대합니다.



8.15 - NATIONAL LIBERATION DAY OF KOREA



- 일시**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메시아장로교회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 공동  
주최**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 버지니아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 메릴랜드 총한인회
- 문의** 703-625-9552 · lee2000afc@gmail.com

### 후 원

주미국대한민국 대사관 · 국가보훈부  
 광복회워싱턴지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 참여단체

국립통일교육위원워싱턴협의회 · 국가원로회의미동부지회  
 6.25국가유공자회워싱턴지회 · 재향군인회미동부지회 · 월남전참전유공자회  
 미동부워싱턴해병대 · ROTC 워싱턴 ·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 이순신미주교육본부  
 버지니아아태연합회 · 미주한인경찰협회 · 재미워싱턴체육회 · 워싱턴여성회  
 한미여성재단 · 미주통일연대워싱턴 · US한미자유연맹 · 미주한미동맹재단  
 AKUS한미연합회 · 워싱턴지구호남향우회 · 한미국가조찬기도회  
 서울대학교 세계한인통일평화 최고지도자과정 동문회



# 원전화재 네뿔 공방... “우크라이나 핵테러” “러시아 자작극”

냉각탑 손상... 방사능은 누출 안 돼  
우크라이나, 러 본토 내 30km까지 진입  
전문가 “인천상륙처럼 뒤집힌 무리”  
푸틴 “우크라이나, 협상위해 기습 공격”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지 11일째인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장갑차를 타고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 본토를 급습한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원전을 향해 진격 중인 가운데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자포리자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해 냉각탑 중 하나가 손상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자는 화재가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방사능은 누출되지 않았다. 자포리자 원전 6기는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9월 가동이 중단됐다.

양국은 ‘네 뿔 공방’에 열을 올렸다.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은 성명을 통해 “11일 오후 8시20분과 32분쯤 자포리자 원전의 2개 냉각탑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공격형 드론에 직격돼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번 화재를 우크라이나의 ‘핵 테러’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에 불을 질렀다면서 “러시아는 필요할 경우 자포리자 원전을 파괴해 우크라이나에 핵 재난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우크라이나를 압박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서 11일째 지상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발생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국경에서 각각 25km와 30km 떨어진 톨로노와 옴스치 콜로데스에서 우크라이나군 기동대의 돌파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크라이

나군이 러시아 본토 내 최대 30km 지점까지 진입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군도 쿠르스크의 여러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경에서 약 3km 떨어진 마을 계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관공서에서 러시아 국기를 제거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가디언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원전이 위치한 쿠르스크주의 쿠르차토프를 향해 진군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옴스치 콜로데스에서 쿠르차토프 원전까지는 50km 이내다.

BBC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쿠르차토프 원전 근처에 새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양국에 “최대한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 측 민간인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은 12명이 숨지고 12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12만 1000명이 대피했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 “러시아 영토에서 적을 쫓아내는 게 국방부의 주요 임무”라고 말했다고 BBC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은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BC는 스미르노프 주지사 대행이 이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안 12km까지 진입했으며 28개 마을이 적의 통제에 놓이는 등 상황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선전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마이클 클라크 특별연구원은 지난 10일 다탈스키 기고문에서 “이번 작전은 인천상륙작전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작전이지만, 인천상륙작전과는 달리 전쟁을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형수·임선영 기자

## 흑인 여성 대통령은 불편해?...흑인 남성 표심, 미국 대선 변수되나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의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흑인 남성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적지만 유의미한 수의 흑인 남성들이 역사적으로 권력의 최상위직에 도전하는 흑인 여성을 지지하는 데 주저해왔다면 이들이 오는 11월 대선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정치인으로서 ‘최초’ 행보를 이어간 인물인 셸리 치점은 1972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했을 때 흑인 남성 정치인들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치점은 미국 연방의회에 입성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온 첫 여성 후보였지만, 흑인 남성 동료들은 그들의 허락을 받고 경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NYT는 전했다.

치점은 당시 상황에 대해 “흑인 남성 정치인은 백인 남성 정치인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돌아봤다.

그로부터 반세기 뒤인 2022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스테이시 에이브럼스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다. 캠페인 기간 그에 대한 흑인 남성



미국 민주당 지지하는 흑인 유권자들

들의 지지가 시원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에이브럼스는 흑인 남성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모임까지 조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화당 백인 남성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NYT는 이처럼 흑인 남성 유권자들이 흑인 여성 정치인을 지지하기를 망설이는 것이 ‘방 안의 코끼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방에 코끼리가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지만, 동시에 모두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리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다.

학자들은 흑인처럼 사회 문제에 보

수적인 인구집단이 역사적으로 리더십을 남성성과 동일시해왔으며 이는 교회나 기업, 정치권 등에서 흑인 여성 지도자가 부족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모아 베일리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이러한 가부장적인 경향이 흑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흑인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흑인 여성이라는 점 외에도 검사 시절 구축한 ‘최고 경찰’ 이미지도 문제라고 NYT는 전했다. 검사로서 범죄 소탕에 앞장서 온 이력은 흑인 남성을 잡아들이는 인물

이라는 인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가 민주당 주류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라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으로 평가돼온 흑인 남성들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의 첫 흑인 여성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측은 이런 점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올해 초 흑인 남성 지도자 그룹을 관저로 초대해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현 행정부의 정책이 흑인 공동체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 볼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엔필드 시장인 W. 먼데일 로빈슨은 최근 한 온라인 모금행사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불신이 크다고 흑인 남성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흑인 남성의 지지를 자신하며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난주 한 기자회견에서 “나는 흑인 남성들과 아주 잘 지내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또한 불법 이민자들이 흑인의 일자리를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이 흑인 유권자들을 버렸다고 비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 캠프의 참모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이탈한 일부 흑인 남성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힘의 향상화’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의 지지를 되찾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흑인 남성들을 향해 더 당당하게 흑인 여성 정치인을 지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인 콰미 라울은 “때때로 흑인 남성들은 흑인 여성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이 흑인 남성으로서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떠오른 직후 흑인 남성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에 나섰던 라울 장관은 “하지만 흑인 여성을 지지한다고 내가 모자란 흑인 남성이 되지는 않는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호소했다.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 신제품 세종 후코펫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GMP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효과, 면역력증대, 세질개선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진원칙,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Sejongbiotech, Inc. **세종바이오텍** 703-256-7671

www.sejongbiotech.us | www.sejongbiopet.us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8월 HOT 리스팅**

##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비엔나 타운홈**  
 방3+와3+차고2  
 2001년, 2100sf  
 젤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와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와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와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와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와3,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 안보투톱 깜짝 교체 대북 강경파 전면

안보실장 신원식, 국방장관 김용현  
둘다 육사출신...용산 "군 안팎 신망"  
인권위장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12일 여름 휴가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처음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 연쇄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하고, 공석이 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후임 경호처장 후보로는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등이 거론된다.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인선을 발표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신 내정자에 대해 "현 국방부 장관으로서 당연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 위원장에 공안 검사 출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정 실장과 함께 브리핑실에 온 김 후보자는 "지금 국내외 안보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안보가 곧 경제"라며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문제와 관련해선 "관련 수사가 끝나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안보실장 자리에 교수 출신인 김성한,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국정원장)·장호진 등 외교 전문가를 기용했었지만 이번 인사로 외교·안보라인에 군 출신 대북 강경파가 전면에서 서게 됐다. 육군사관학교 선후배인 신 내정자(육사 37기)와 김 후보자(육사 38기)는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거친 작전통이자, 군 내 대표적 매파로 꼽힌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신 내정자는 취임 직후부터 북한 도발에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 원칙을 내세워 대응했다. 지난 6

월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업무를 총괄했다. 윤 대통령의 총안과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는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총괄하며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가 의결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태인 기자

## 새 통일담론 발표 사흘 앞두고 '즉강끝' 신원식 전격 내정

(즉각, 강력히, 끝까지)

안보라인 중심, 외교부서 국방부로  
10년 만에 군 출신 안보실장 임명  
용산 "힘에 의한 평화에 필요한 인선"  
일각 "윤 정부 4번째 실장, 교체 잦아"  
장호진, 장관급 외교안보특별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전격 내정한 것을 두고 임기 중반 정부 외교안보라인 힘의 균형추가 외교부에서 국방부로 옮겨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초대 안보실장으로 학자 출신인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한 이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줄곧 외교부 출신을 중용해 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안보실장에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실장 이후 10여 년 만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때부터 외교·안보 진용 변화를 구상해 왔다고 한다. 북·러 정상회의에 따른 후폭풍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안보라인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지난주 여름휴가 기간 속고 끝에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는 발표 직전까지 대통령실 내 국소수 참모만 알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 인사 당사자들도 직전야야 통보받았다고 한다.

발표 직전까지 용산 국소수 참모만 알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정 전반 기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미 동맹 복원과 한·미·일 협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윤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있다. 이날 만찬에는 김건희 여사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참석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배석했다. [사진 대통령실]

면, 후반기는 힘에 의한 평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선을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보실장 교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선 현 정부가 출범한 2년3개월 동안 국가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실장 인선이 네 번(김성한·조태용·장호진·신원식)이나 이뤄진 것을 두고 교체가 너무 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에는 상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잦은 교체는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외교·안보정책은 강경하게만 가선 안 되고 강한 군사력과 유능한 외교, 유연한 태도, 정보 능력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며 "특히 현 정부 역대 안보실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6개월 안팎인

데, 지금 시점에서 왜 안보 총책임자를 바꿔야 하는지를 정부가 납득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인사 단행 시점도 미묘하다. 정부는 사흘 뒤 8·15 광복절 경축 기념식에서 윤 정부의 새 통일 담론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런데 신 안보실장 내정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북 강경파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 강력히, 끝까지(즉·강·끝)' 기조를 강조해 왔다.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없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물론 국방부 장관의 직과는 달리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안보실장의 직을

말았을 때는 임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외에 주는 상징성은 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 대비가 시급한 시점에서 '군 출신 안보실장' 체제 출범이 적절하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간 박빙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 캠프를 접촉할 외교적 네트워크와 정보 수집 역량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앞두고 실장 교체, 시기상 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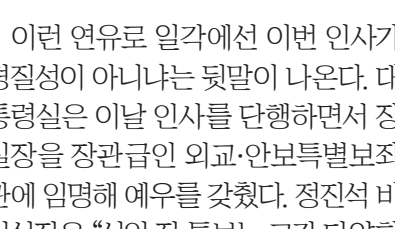
특히 '트럼프의 귀환' 시 확장 억제 등 현 정부에서 이론 한·미 동맹의 성과와 주한미군의 위상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을 다시 교체해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미국 대선을 3개월 앞둔 인사는 시기상 의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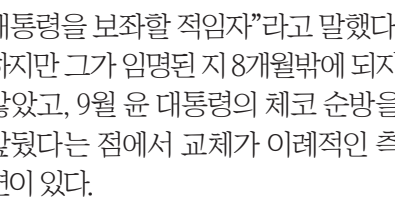
신원식  
안보실장 내정자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장호진  
안보특별보좌관 내정자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이런 연유로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경질성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사를 단행하면서 장 실장을 장관급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해 예우를 갖췄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신임 장 특보는 그간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 왔듯이 계속해서 국제정세와 외교·안보정책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임명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9월 윤 대통령의 체고 순방을 앞뒀다는 점에서 교체가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의명을 요구한 정보 소식통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의에서 맺어진 북·러 군사 동맹에 대해 국가안보실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찮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러 조약 체결 직후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 등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주러시아 대사 출신인 장 실장이) 도를 넘는 북·러 관계 밀착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유정·박태인·박현주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및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중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SELFOTo**  
STUDIOS

www.Selfotostudios.com

온라인 예약

# ‘아픈 손가락’ 물고늘어진 장관 청문회… 아버지는 울었다

**현장에서**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 청문회 야당 “아들 병역기피 의혹” 공세

“아들이 아파서 군대에 못 간다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본관의 대기실에서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들이 건강했다면 당연히 군대에 갔을 것이다. 나도 보내고 싶었다”라면서다. 12일 공개된 당시 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유 후보자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가득하다. 마음의 병을 앓았던 자녀를 후배 파는, 가히 잔인한 청문회였다.

이날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유 후보자 장남 유모씨의 미국 불법체류와 병역 기피 의혹이었다. 유씨는 2006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유학과 단기 여행 등을 이유로 병역판정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후 2013년 1월부터 연기사유가 없는 데도 미국에 머물러 병역기피를 위해 불법 체류한 것 아니냐는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혹이 제기됐다.

유 후보자는 “아들이 질병으로 입원하며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 당일 오전엔 300쪽가량의 진료기록부도 제출했다. 후속 질의는 유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야 합의로 비공개 진행됐다. 진료기록부엔 유씨가 미국 체류 당

시 이상 증세를 보여 강제입원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고 한다.

유 후보자 주장을 종합하면 2013년 2월 미국에서 홀로 생활하던 장남 유씨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에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이어 법원 판단을 거쳐 15일간 강제입원됐다. 당시 미국인 의사가 유씨에 대한 질병 판정을 내

리면서, 급히 미국으로 날아간 유 후보자가 장남을 한국에 데려와 치료를 받게 했다. 해당 질병으로 같은 해 6월 유씨는 군 면제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질병으로 인한 유씨의 군 면제에 대해선 이견을 달지 않았다. 하지만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민주당 위원들은 기록부 말미에 짧게 담긴 ‘부정기적으로 마리아나를 흡입하고 있다’는 문구를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 설명과 달리 유씨는 질병이 아닌 마리아나 흡입으로 체포돼 강제입원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유 후보자 측은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마리아나 흡입이 불법이었던 만큼 마리아나가 원인이었다면 입원이 아닌 구금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은 유씨의 국내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교수를 불러 발병 시점에 대한 설명을 듣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청문위원장은 “한국에서 병역 판정을 받을 당시 (유씨가) 아팠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한다”면서도 “오히려 소견서를 쓴 미국에 있는 닥터를 모셔야 하는 것이

니냐”고 했다. 대기 중이던 유씨 주치의는 답변 기회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결국 야당이 의혹 검증보다 공세에 치중한 탓에 ‘비공개’하기로 했던 유씨의 질병 이력만 노출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의심하던 유씨의 병적 판정, 병력을 알아볼 기회를 스스로 건어쳤다. 유씨의 주치의는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씨를 진료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강제입원의 원인이 마리아나라면 그 전후의 유씨 병세가 설명이 안 된다”며 “자극적 소재를 이용해 유씨를 궁지로 모는 듯한 모습이라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청문회가 끝날 무렵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아드님께서 부디 이 방송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치료가 잘돼서 아드님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시는 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지켜본 기자들의 생각도 꼭 같았다. 이런 식의 청문회라면 누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누가 나라를 위해 공직을 맡으려 하겠는가.

김기정 기자

## 정봉주 “당 분열시키는 명팔이 뿌리뽑겠다” 친명 혁신회의 저격

(이재명팔이)

“이재명 최고위원 경선개입 열받아” 비공개 발언 논란 되자 기자회견

정봉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팔이’ 무리들이 있다”며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 암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

면서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 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며 당을 분열시켜 왔다. 이재명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 정치를 하고 있다”며 “많은 이가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어떤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누구냐에 대해선 “누구나 알 만한 사람들, 이 기자회견을 보고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힌 정 후보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22대 총선에서 김우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황명선 조직부총장 등 30여 명의 당선자를 낸 친명 원외조직 ‘더민주혁신회의’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견은 자신의 비공개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

에서 정 후보와의 통화 사실을 밝히고 “정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경선) 개입에 상당히 열 받아 있다. 정 후보가 ‘최고위원회의’는 만장일치제다. 두고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사적 대화이다 보니 본의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명계는 “내부 총질”이라며 부글부글거리고 있다.

성지원 기자

## 공무원 수 20년만에 첫 감소… MZ 퇴사 늘고 채용은 반토막

매년 늘어난 공무원 숫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줄었다. 김대중 정부(1998~2003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공공부문 감축 기조 때문이지만, 최근 젊은 공무원 중심으로 퇴사자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공무원 숫자는 117만1070명으로 나타났다. 국가 공무원이 75만3974명(64.4%), 지방 공무원이 39만1484명(33.4%)이었다. 공무원 수는 2014년 처음 100만명을 넘겼고, 2020년 113만1796명→2021년 115만6952명→2022년 117만1413명까지 계속 늘다 지난해 증가세

가 꺾였다.

공무원 숫자가 소폭이나마 줄어든 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뒤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나선 김대중 정부 이후 20여년 만이다. 역대 정부 공무원 증감률은 김대중 정부 -3.37%, 노무현 정부 8.23%, 이명박 정부 1.24%, 박근혜 정부(4년2개월) 4.19%, 문재인 정부 12.6%이다. ‘큰 정부’를 지향한 문재인 정부 시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공공부문 감축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 ‘통합활용 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정부 부처별로 정원의 1%(임기 내 5%)를 감축하고,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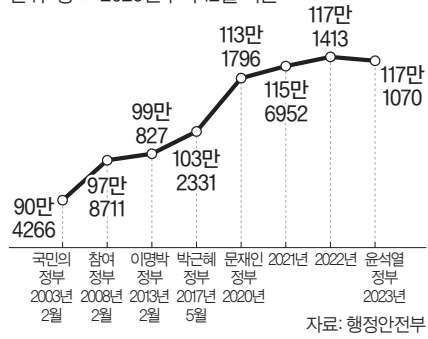
축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하는 식이다.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 신규 채용을 줄이는 추세다. 서울시는 올해 7~9급 신규 지방 공무원을 1602명 뽑는다. 지난해보다 718명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시절 인력을 과도하게 뽑은 점과 예상 퇴직자 등을 고려해 채용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규 공무원 1012명을 뽑은 부산시도 올해 절반 수준인 510명만 선발한다.

최근 퇴사자가 늘어난 영향도 받았다. 박봉과 약성 민원, 낮은 조직문화 등

증가세 꺾인 공무원 수

단위: 명 ※2020년부터 12월 기준



으로 꾸준히 늘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1021명을 설문한 결과 32.5%(332명)가 “조직이 원하더라도 추가 업무를 맡을 용의가 없다”는 식의 ‘조용한 사직’ 상태로 집계됐다.

어느 정도 수준 공무원 숫자가 적정 하나에는 정답이 없다. 조태준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는 “공무원 숫자 자체보다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공무원을 늘려온 점을 우려한다”며 “공무원은 일단 숫자를 늘리면 민간과 달리 줄이기 어려운 데다 세금(인건비·연금)이 들고, 불필요한 간섭·규제가 따라붙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 김원근 변호사 유연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일제 탄압 기억 생생해도 계속 적으로 둘 필요없어”

102세 최고령 독립지사 이하전翁의 조언

17세때 비밀조직 만들어 독립운동  
일본 유학중 노출돼 압송, 옥살이  
미국 집서 태극기·한복 선물 받아  
눈물 글썽이며 ‘고향의 봄’ 답가

“먼 곳까지 오게 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1921년 11월생, 올해 102세가 된 이하전 독립지사는 감사패와 태극기, 새 한복을 받아들이고 연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일제의 탄압, 오랜 타향살이의 흔적이 느껴지는 주름진 손은 고운 한복을 계속 쓰다듬고 있었다. 어느새 깊이 팬 두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광복 79주년을 앞둔 현재 독립 훈장을 서훈 받은 애국지사 중 생존자는 6명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1년간 3명이 서거했다. 중앙일보는 6명 중 최고령자인 이 지사를 미국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인터뷰했다. “이제야 영웅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9일 현관문을 두드리자 이 지사

가 보행기에 의지한 채 아들 부부와 함께 문 앞으로 나왔다. 주미대사관 이길현 보훈관의 정중한 인사에 이 지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동행한 빙그레 미주법인 관계자로부터 받은 김혜순 장인의 한복을 갈아입고는 “정말 한국 사람이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보훈부와 빙그레는 광복절을 앞두고 생존 독립지사들에게 새 한복을 전달한다. 유관순 열사 등 옥중에서 순국해 죄수복 차림으로 남아 있는 87명 독립지사의 사진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바꾸고, 후손들에게 사진 속 한복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평양 송인상업학교에 다니던 17세 때 동지들과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일본 유학중 총독부가 함석헌 선생(1901~1989) 자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사체가 노출돼 이 지사는 한국으로 압송됐고, 3년 반 동안 옥살이를 했다. 신천(信天) 함석헌 선생과 함께 이

지사의 정신적 스승은 도산(島山) 안창호(1878~1938) 선생이다. 흥사단 단원이었던 이 지사의 뜻도 도산의 ‘실력양성론’과 닮아있다.

이 지사는 광복 이후 남과 북이 갈라져 지자 월남했다. 그리고 도산의 길을 따라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배를 탔다. 그는 광복의 기쁨도 잠시 “남과 북으로 분단돼 버렸다”며 “공산당에는 동의할 수 없어 아버지와 임진강을 건넜다”고 했다. 연희학교를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행 배를 탔는데, 5달러가 전부여서 매일 접시를 닦으며 공부했다.

한국전쟁이 시작될 당시 그는 몬트레이 미 육군 언어학교의 한국어과 교수였다. 한국에 파병되는 군인들에게



국가보훈부와 빙그레가 이하전 독립지사에게 전달한 감사패. 새크라멘토=문진욱 기자

한국어를 가르쳤고, 그 일을 30년 넘게 했다.

일제의 압제를 생생히 기억하는 이 지사는, 그러나 이제 일본과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 상황은 모르겠지만, 일본과 계속 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웃으로 지내면 된다”며 “우리 한국사람들이 (그들보다) 머리가 좋잖아. 그러면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후손들에게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 지사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보훈부는 이 지사를 포함, 생존 독립유공자 6명을 위한 국립묘지 공간을 확보해줬다. 이 지사도 7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과 함께 안장될 예정이다.

인터뷰를 마친 이 지사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자청했다. 그가 나지막이 부른 노래는 ‘고향의 봄’이었다. 그리고는 “언제든 다시 찾아와 달라”며 보행기에 기대 현관까지 나와 고국에서 온 손님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만난 이하전 독립지사. 그는 생존해 있는 독립지사 6명 중 최고령이다.

## 강남역은 치과의원역 성수역은 올리브영역

11억·10억에 역 이름 팔려  
CJ올리브영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이름을 10억원에 낙찰받았다.  
12일 서울교통공사와 공매 포털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된 역명명기 유상 판매 사업 입찰 결과,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 10개 중 2호선 성수역과 강남역, 5호선 여의나루역과 7호선 상봉역 등 4곳이 낙찰됐다.  
역별 낙찰자는 성수역의 경우 CJ올리브영, 강남역은 하루플란트치과의원, 여의나루역은 유진투자증권이다. 상봉역은 1곳이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을 맺은 상태로, 기관명 등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역별 낙찰가는 성수역 10억원, 강남역 11억1100만원, 여의나루역 2억2200만원이다. 특히 강남역은 역대 낙찰가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기

존 기록은 2·3호선 을지로3가역(신한카드) 8억7000만원이었다. 강남역을 낙찰받는 치과의원은 밴드 자우림의 보컬인 김윤아의 남편(가수 출신 치과의사 김형규)이 수석 원장으로 몸담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역명명기 사업은 사용료를 받고 지하철역 1km 이내 위치한 기업·병원·기관 등의 이름을 기존 역명과 나란히 적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번에 낙찰된 역은 준비 기간 60일을 거쳐 10월쯤부터 역명 변경을 시작해, 3년간 표기한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1호선 종각역과 2호선 신림역, 5호선 답십리역, 2·4호선 사당역, 4·6호선 삼각지역, 4·7호선 노원역 등 6개 역은 유찰됐다. 공사는 이들 역을 대상으로 이달 중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예슬 기자

## 배터리 정보부터 공개 추진... ‘전기차 포비아’ 막는다

정부, 전기차 화재 대책 긴급회의  
완성차 업체에 공개 의무화 검토  
현대차·기아·BMW 제조사 밝혀  
벤츠 “공급망 정보 비공개” 고수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완성차 업체들에게 권고 이상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단기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12일 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차관 주제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지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이날 발표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단기 대책은 ‘배터리 정보 공개’다. 당장 완성차 업체들에게 최소 권고 이상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배터리



12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 외부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현수막이 걸렸다. 정부는 다음 달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보를 공개(의무화)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속속 공개하고 있다. 지난 9일 현대차가 휴폐 이지를 통해 전기차 13종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데 이어, 12일 기아(7종)·BMW(10종)가 배터리 제조사를 밝혔다. 반면 인천 화재 차량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공급망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자칫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막판까지 정보 공개 수위를 조율할 전망이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환경부는 올해 초 전기차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력선통신(PLC) 모델’을 장착한 충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40만원 더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보조금 가점을 더 주는 등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차와 충전소 관련 보조금을 기존 제도보다 안전성에 더 초점을 맞춰 설계하는 등 전기차 보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혜·고석현 기자

### 프렌차이즈 | 비즈니스 매매

 <p><b>주 6일 프렌차이즈</b> <b>\$320K 인컴 \$1만</b> <b>페어팩스 버지니아</b></p>	 <p><b>주 6일 Deli</b> <b>\$370K 인컴 \$2만</b> <b>몽고메리 메릴랜드</b></p>	 <p><b>주 6일 Deli</b> <b>\$180K 인컴 \$1만</b> <b>PG 메릴랜드</b></p>	 <p><b>\$250K 인컴 \$1만</b></p>	 <p><b>703.395.3123</b> <b>COSTAR GROUP   POWER BROKER</b></p>
---	--	---	--	---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p><b>VA 센터빌</b> <b>703-815-2300</b>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p>	<p><b>MD 락빌</b> <b>301-881-1000</b>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p>	<p><b>MD 엘리콧 시티</b> <b>410-715-3500</b>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p>
---	--	---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톰 크루즈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처럼 와이어를 타고 등장(오른쪽)한 뒤 오륜기를 흔들며 차기 올림픽 개최지인 LA를 홍보했다. [AFP, AP-연합뉴스]

# 톰 크루즈 하늘서 내려오자, 파리 주역들 입으로 성화 꾀다

(영화배우)

세계가 만끽한 18일 열전 에펠탑·그랑팔레 등 명소에 경기장 폐회식 사상 첫 여자 마라톤 시상 엔딩곡 '마이웨이'... 다음 대회 LA

프랑스 파리를 18일간 비추던 성화가 꺼졌다. 4년 뒤 LA에서의 재회를 기약하며 2024 파리 올림픽이 12일(한국 시간) 폐막했다. '완전히 개방된 대회(Games Wide Open)'라는 슬로건처럼 이번 대회 개최식은 지난달 26일 사상 처음 경기장 밖에서 열렸다. 난민 팀을 포함한 205개국 선수단은 센강 위를 떠가는 배를 타고 입장했다. 반면에 폐회식은 육상 경기장인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렸다.

폐회식은 이번 대회 수영 4관왕 레옹 마르상(프랑스)이 성화 램프를 들고 걸어가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참가국 기수들이 입장했다. 한국은 태권도 남자 58kg급 금메달리스트 박태준과 여자 복싱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동메달) 임애지가 기수로 나섰다. 폐회식에서 남자 마라톤 시상식이 열리는 기존 관례를 깨고, 성 평등을 지향한 이번 대회에선 여자 마라톤 시상식이 진행됐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여자 마라톤 우승자 시판 하산(네덜란드)에게 금메달을 수여했다.

바흐 위원장과 토니 에스탕게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각국 선수단을 격려하고, 파리 시민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바흐 위원장은 "센강처럼 '센' 세이셔널한 대회였고, 새로운 시대를 알렸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오륜기를 다음 개최지인 LA 측에 전달했다. 캐린



1 5대륙 대표 선수들과 함께 성화 불씨를 끄는 프랑스 수영 4관왕 레옹 마르상(왼쪽 넷째). 2 '인류의 근간을 찾아 떠나는 탐험'을 주제로 공연하는 골든 보이저. 3 킬리리 정원에 설치됐던 열기구 형태의 올림픽 성화대. 4 폐막식이 열린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 전경.



3 킬리리 정원에 설치됐던 열기구 형태의 올림픽 성화대.

생드니=김성룡 기자, [신화, 로이터=연합뉴스]

베스 LA 시장이 오륜기를 건네받았고, 여자 기계체조 3관왕 시몬 바일스(미국)가 자리를 함께했다.

심어송라이터 H.E.R의 미국 국가 제창에 이어 관중의 환호성이 터졌다. 미국 배우 톰 크루즈가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처럼 경기장 지붕에서 로프에 매달려 낙하했다. 선수들을 해치고 무대에 오르는 준비된 오토바이에 오륜기를 옮겨 꽂고 경기장 밖으로 질주했다. 미리 준비된 영상이

이어졌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질주하던 오토바이는 그대로 비행기에 올랐고, 크루즈는 잠시 후 비행기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했다. 지상에 안착한 그는 LA의 상징인 할리우드 입간판(HOLLYWOOD)에 'O'자 3개를 덧붙여 오륜을 완성했다.

차기 개최지의 축하공연 후 마르상이 다시 경기장에 들어섰다. 마르상은 바흐 위원장과 5대륙을 대표하는 프랑스 테디 리네르(유도), 쿠바 미하인

로페스(레슬링), 호주 에마 매किन(수영), 중국 쑨잉샤(탁구), 케냐 엘리우드 킵초게(육상), 그리고 난민 선수단의 신디 은감바(복싱)와 나란히 서서 함께 입김을 불어 성화를 꾀다. 샹송 '콤 다비튀드'를 변안한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 웨이'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면서 파리 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 대해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처음 열린 올림픽답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올림픽과 전 세계인이 지구촌 스포츠 축제를 만끽했다. 경기장 등의 신축 대신 에펠탑과 그랑팔레, 콩고르드 광장 등 명소를 경기장으로 활용해 도심 전체를 올림픽 무대로 만든 점도 호평을 받았다. 물론 2년 뒤 열릴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과 차기 대회인 2028 LA 올림픽, 그리고 IOC에도 해결 과제를 남겼다.

우선 파리가 표방한 '친환경과 저탄소'가 초반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탄소 배출을 줄인다면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고, 선수들이 탄 버스도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았다. 개막 전까지는 파리 날씨가 예상 밖으로 선선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막과 함

께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 창문마저 열리지 않는 버스 내부는 찜통으로 변했다. '선수가 버스 안에서 쓰러졌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한국 등 많은 국가가 경기장 가까운 곳의 호텔을 임시 숙소로 잡아 자국 선수 보호에 나섰다. 형편이 어려운 국가는 그마저 할 수 없어 참가국 간 '부익부 빈이 빈' 논란으로 비화했다. 명분(친환경·저탄소)도 좋지만, 인명 보호가 우선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또 다른 핫이슈는 성 정체성 논란이었다. 앞서 지난 3월 세계선수권 당시 국제복싱협회(IBA)는 여자 66kg급 이마네 켈리프(25·말제리)와 57kg급 린위팅(28·대만)에 대해 "혈액 검사 결과 남성성을 뜻하는 XY 염색체가 검출돼 여자부 경기는 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IOC는 각종 비리 등을 이유로 IBA를 올림픽 대회 운영에서 배제했다. IOC는 대신 켈리프와 린위팅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경기 출전을 허락했다. 정작 이들과 맞붙었던 여러 선수가 불만을 드러냈다. 두 선수는 여성 간 대결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압도적 승리로 금메달을 따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성 정체성 논란은 두고두고 스포츠계를 달굴 전망이다.

파리=김효경·고봉준 기자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십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서울미극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신침구현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 \*\* 특진 (사암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실염, 부인과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TV TRAVEL CHANNEL  
서울미극한방병원  
방영

크레딧카드  
결제 환영

우리말 바꾸기

‘햇빛’, ‘햇볕’

“햇빛이 뜨거운 한낮에는 최대한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라는 말은 무척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여기에는 잘못된 표현이 숨어 있다.

태양은 ‘빛(光)’과 ‘열(熱)’을 내뿜는다. 우리말은 어휘가 다양하고 섬세해 이를 가리키는 낱말도 ‘햇빛’과 ‘햇볕’으로 나뉘어 있다.

‘햇빛’은 태양의 광선(光)과 관련된 것으로, 시선경을 자극해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전자기파다. 우리는 햇빛으로 인해 ‘밝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시니 커튼을 치자” “눈부신 햇빛이 찬란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등에서는 ‘햇빛’을 쓰는 게 적절하다. ‘햇볕’은 태양의 뜨거움(熱)과 관련된 것으로, 해가 내리쬐는 기운을 뜻한다. 햇볕을 통해 살갗에 뜨거움이나 자극의 정도를 느낄 수 있으며, 피부부위에 오래 노출하면 피부가 상하거나 벗겨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노약자들은 햇볕이 뜨거울 때 열사병을 조심해야 한다” “뜨거운 햇볕에 피부가 그을려 벗겨졌다” 등에서는 태양의 뜨거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햇볕’이 아닌 ‘햇빛’을 써야 보다 정확하다.

글의 서두에서 나온 문장에 이를 적용해 보자. “햇빛이 뜨거운 한낮에는 최대한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에서는 ‘명암의 정도’가 아니라 ‘해의 열기’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햇빛’을 ‘햇볕’으로 고쳐 써야 바른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양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제 계약 제휴사  
한국중양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발언대

대한민국 외교 공무원님들께



양민  
박사·교육 컨설턴트

대한민국의 외교 공무원들, 그리고 영사업무 담당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난 5월 2일 LAPD 경관 안드레스 로페즈에게 살해당한 제 아들 양은은 1984년 4월 7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해 11월 초 유학 간 아비와 합류하기 위해 LA로 건너온 이후 40세가 된 올해 2024년 5월 2일까지 LA카운티에서 출근 살아왔습니다. 40년간 LA시, 글렌데일, 라카나, 노스리지 등에서 거주하였으며 LA한인타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65세가 되도록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제 아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 그러나 제 아들은 평생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것입니다.

사망 당일 제 아들은 LA 거주자이자 영주권자로서 미국법과 미국 정부의 처리 방식에 따랐지만 국적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마 제 아들처럼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숨지는 사례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환으로, 병으로, 또는 사고로 사망 원인도 다양할 것입니다.

단지 제 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아들은 해외에서 숨진 많은 재외국민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몇 가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특수성이란 총격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된 점, 공권력(LAPD)에 의해 살해된 점, 현행범이 아니고 도주 시도도 없었는데 살해된 점, 정신불안증세 환자임을 알고 있던 경관에 의해 살해된 점, 경관의 살해 의도가 있는 총격으로 살해된 점, 심장, 폐, 위장, 췌장, 간, 요추, 흉추 등 주요 장기가 모두 손상된 채 살해된 점, 총격 후 응급처치 없이 사망한 점, 응급 구조원이 총격 후 8분이나 지나 도착한 점, 부모가 병원 이송을 부탁했는데 환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무리한 가택 진압과 체포 시도로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어 사태를 악화시킨 후 살해한 점 등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숨진 대한민국 국적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에 제 아들의 죽음이 갖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 아들의 모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관할 외교공관의 심적, 도의적, 법적, 외교적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죽은 제 아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를 대신해 부모인

제가 모국 정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고, 정부는 어떤 것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를 알려주시면, 망자와 유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 동일한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를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국가가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또는 해 줄 수 없을 것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적절히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직 아무런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 제 아이가 죽고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LA총영사관의 강영환 경찰장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제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로 국민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통화 중에 강 영사님이 안타까워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최근 LA한국문화원에서는 LAPD 경관들을 초청해 문화 교류 행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님들의 노고와 입장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느 분도 LAPD 경관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제 아들의 비극을 전달하거나, 관련 질문을 하지는 못하셨는지요? 문화 교류 행사에서 희생자를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갖지는 않으셨는지요?

대한민국 국적자의 목숨이 미국 정부에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며 입맛이 씩니다.

살며 생각하며

70%만



김선주  
NJ 케어플러스 심리치료사

내 ‘몸뎅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주 2회 필라테스, 주 2회 개인 트레이닝, 주 1회 하이킹 계획이 활기차게 진행되던 삼주 차였다. 몸에 탈이 나면서 필라테스, 개인 트레이닝은커녕 일주일 내내 누워 넷플릭스만 봤다. 아, 아놈의 부실한 내 ‘몸뎅이!’ 또 잊고 있었다. 내가 늘 명심해야 할 70% 법칙을.

금요 북클럽 모임에서 ‘Boundaries(Cloud & Townsend)’ 책을 읽다 놀라웠던 섹션은, 뒷부분에 나오는 자신의 바운더리(Boundaries and Yourself)에 관한 챕터였다. 가족, 친구, 일, 심지어 하나님, 디지털 기기들과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으나, 나 자신과의 바운더리? 완전 새로운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 섹션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 깨닫게 되었다. 가장 바운더리를 지키기 힘든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가장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이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음식이었다. 이어 돈 쓰는 것, 시간 사용하는 것,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나, 이외에도 성생활, 약물(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에 있어 자신에게 건강한

바운더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실 자신과의 바운더리 문제의 대표적 인물은 바로 나다.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 싫어하는 건 죽어도 안 먹는다. 몸에 안 좋은 나의 유지한 소울푸드? 늘 과식이다. 돈도 그렇다. 생각해보면 낭비가 적지 않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얻어보려 하게 만드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원인이다. 시간 사용도 문제다. 워라벨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그게 안 된다. 늘 숙제를 못 마친 사람처럼, 약속을 못 지킨 사람처럼, 강박에 시달린다. 그래서 캘린더가 점점 뿩뿩해진다.

가장 심한 문제는 체력이다. 바운더리를 무시

하고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늘 몸살을 달고 산다. 이번에도 그랬다. 요즘 내 가늘어진 종아리를 보는 사람마다 나의 근육 1도 없음을 무지막지게 걱정했다. 그 결과, 과감히 빠른 운동 스케줄을 잡았고, 역시나 바로 3주 후 또 짜당이 온 것이다.

바로 필라테스를 주 1회로 줄였다. 개인 트레이닝도 1회만 하고 사이사이 가볍게 운동하는 거로 운동 스케줄을 조정했다. 이번 기회에 나의 소울푸드도 120%가 아니라 70%만 먹고, 시간, 돈, 말도 적절한 바운더리를 유지하고 절대 과하지 않으리라 결심한다.

이 ‘Boundaries’ 책의 부제는 ‘How To Say Yes/When To Say No’이다.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죄책감 없이 예스,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하는 것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노를 하는 것이 삶의 기술이라는 주제이다. 이제부터 캘린더도 70%만 채워야겠다. 30%의 여백이 내게 가져다줄 선물들을 바라본다. 우리 모두 바운더리의 달인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맛있는 용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양일보

① 워싱턴 중양일보

① 워싱턴 중양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스토어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8월 스페셜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供辰丹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선천성 허약체질, 월경이상, 만성피로, 두통, 어지러움, 체력저하, 무력감

김요곤 침향 녹용단
\$430 \$199.99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30 \$159.99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
20% Sale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함양여주환
당뇨잡는 도깨비 방망이 함양 여주
쓴 여주를 먹기 좋게 환으로
당뇨, 통풍, 콜레스테롤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위건강엔 마스크
FromBIO

캐변플러스
코팅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Nutridom Collagen
저분자 고급 피쉬 콜라겐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항병 공짜

이름 키즈10
키 10배 키우기
이름 황성주생식
독소배출/다이어트/혈액정화

징크크린 정
기질성 뇌능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농협용심 안삼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암환자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3+1 스페셜 그린 프로폴리스
순도 100% 천연 항생제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1oz \$40, 4oz \$120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세종 승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공짜선물이 팡 팡
향풍정 홍삼
국내최고 사포닌 8mg
풍기 홍삼액 골드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SP HEALTH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 만성기침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흑마늘환, 제도아리 / 제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정받은 원료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은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문경 오미자청
토종 오미자를 친환경 농법으로 오미자만을 전통 발효로 진하게
혈액순환, 해독, 피로회복

유기농 국화차
향으로 맛으로 눈으로 즐기세요!
유기농으로 키운 명품 수제차
불면증, 신경안정, 눈 건강, 피로회복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유기농 CBD 통증 크림
근육, 신경, 관절 통증에 최고
관절염 통증과 붓기에 도움
천연 성분으로 안전한 통증 크림
순도 1000 / 2000mg

함수면 CBD + CBN 젤리
더이상 밤에 뒤척이지 마세요!
수면속 촉진시키는 CBN 함유중독성 없는 천연 수면제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http://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판권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info@toptravelusa.com  
문의: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8월의 추천투어

# 그리스 & 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10박11일  
9/25~10/5  
\$2,890  
+항공



##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레나 고



윤태웅

**2024 크루즈**

Royal Caribbean  
Vision of the Seas

**알래스카**

7박 8일  
8/30~9/6  
\$1990~부터  
(인사이드, 항공포함)

**남부 카리브해**

12박13일  
12/7~12/19  
\$1390  
(인사이드)

## Wonderful TOUR

### 2024-25 Yearly Schedule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b>마감</b>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9/23~1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b>마감</b>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11일	\$29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b>마감</b>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b>마감</b>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종특선) <b>마감</b>	10박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3590+항공
10/29~11/08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11일	\$299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1/14~1/24	파타고니아 10박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13일	\$3390+항공
2/04~2/08	코스타리카 4박 5일	\$1990(항공포함)
2/12~2/23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2/17~2/26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두바이 13박14일	\$11,500+항공
3/17~3/29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
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 10일	\$3990+항공
4/14~4/20	불방학 특선 남프랑스 6박 7일	\$2990+항공
4/15~4/25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4/23~5/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4/28~5/06	정통 동유럽 9박10일	\$3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5/13~5/23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엘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p><b>9월 정통 서유럽</b></p> <p>서유럽의 핵심 도시들을 한번에!</p> <p>9/10~9/20 <b>마감</b> 9/23~10/3 <b>마감</b> 10/9~10/19 <b>마감</b></p> <p>10박11일 \$3,490 +항공</p>	<p><b>10월 스페인 &amp; 포르투갈</b></p> <p>전 국토가 국립공원, 중남미의 푸른 유토피아 생태관광</p> <p>10/8~10/18</p> <p>10박11일 \$3,190 +항공</p>	<p><b>1월 신비의 인도</b></p> <p>인도의 수도 델리, 타지마할의 아그라, 핑크시티 자이푸르, 파타푸르시크리</p> <p>1/28~2/9/25</p> <p>12박13일 \$3,390 +항공</p>	<p><b>2월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b></p> <p>9/25~10/5</p> <p>10박11일 \$2890+항공</p>
<p><b>9월 정통 동유럽</b></p> <p>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동유럽 관광은 유럽의 또 하나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p> <p>8박 9일 9/18~9/26</p> <p>\$3,290 +항공</p>	<p><b>11월 코스타리카</b></p> <p>11/27~12/1 (추수감사절 특선)</p> <p>4박 5일 \$1,190 +항공</p>	<p><b>2월 아프리카 &amp; 두바이</b></p> <p>2/17~2/26/25</p> <p>9박 10일 \$3,590 +항공</p>	<p><b>3월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b></p> <p>3/17~3/29/25</p> <p>12박13일 \$5,490 +항공</p>
<p><b>9월 동유럽 &amp; 크로아티아 발칸</b></p> <p>13박14일 9/18~10/1</p> <p>\$4,390 +항공</p>	<p><b>12월 이태리 일주</b></p> <p>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p> <p>6박 7일 \$2,390 +항공</p>	<p><b>3월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b></p> <p>3/17~3/29/25</p> <p>12박13일 \$5,490 +항공</p>	
<p><b>9월 크로아티아 발칸</b></p> <p>6박 7일 9/25~10/1</p> <p>\$2,890 +항공</p>	<p><b>2025 1월 파타고니아</b></p> <p>1/14~1/24</p> <p>10박11일 \$6,790 +항공</p>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2024-2026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 한국방문의 모든 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3차 9/24~10/4 **마감**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단종특) **마감**  
6차 10/29~11/8

서울/부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4일 대만 \$690+항공  
3박5일 싱가포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카 \$999+항공

3박4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보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약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보검진) 남 100만원 / 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보검진) 남/여 \$460

현대산업개발(서울대병원)기보검진

**Hong Jin-young**

홍진영 콘서트 티켓 판매처

일시: 8월 31일(토) 8pm (개장: 6:30pm)

장소: Live! Casino(21+ Event)

문의: 레나 고 (703-663-8534)

**노동절 특선**

2박 3일 \$699  
8월 31일 출발

레치워스/나이아가라  
왓킨스글렌

3박 4일 \$950  
8월 30일 출발

천성/몽뜨랑블랑  
몬트리올/퀘벡

3박 4일 \$950  
8월 30일 출발

노아의 방주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성/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매주 월출발

5박 6일 \$1350

대행버스출발: 9/16, 10/14

**뉴욕 천성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출발 3박 4일 \$899

대행버스출발: 10/14

**서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베스트셀러

**뉴욕 천성 나이아가라**

1박 2일 \$399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물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대행버스출발: 9/23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일출발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출발

**엘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성극 대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99

9/19, 10/1, 10/17  
10/29, 11/14, 12/12

**캠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단체여행 환영**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워싱턴 출발 요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 교육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Tuesday, August 13, 2024 C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경험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첫 몇주 동안 성적관리가 매우 중요

**8월 개학 준비** 교육 전문가들은 자녀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로 가을학기를 시작하고 2~3주라고 설명한다. 자녀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학년 초에 자녀는 새로운 과목, 새로운 교사를 만난다. 각 과목이 요구하는 사항에 잘 맞추고 방과 후 시간을 쪼개 과목 별로 적절히 배분하는 등 새로운 일과 스케줄을 만드는 데에 길게는 몇 주나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그렇다. 자녀들이 직면하게 되는 개학 준비에 학부모가 도울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첫 성적이 최종 성적 될 수도 있어 대화 창구 열려 소통되는지 확인

새 학년을 맞는 가을 학기는 이제 9월이 아닌 8월에 시작된다. 새 학기를 앞두고 여러가지 준비에 나섰지만 개학에 모든 학생이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이 기간에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해야 할 것은 과목별로 교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목별로 숙제, 퀴즈, 테스트, 프로젝트 등이 어떻게 스케줄 되어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험이나 과제를 제출하면 바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성적은 첫 숙제, 첫 퀴즈, 첫 시험 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매겨지기 시작한다. 첫 숙제를 잘한 학생은 그 시점에서 성적이 A로 시작할 것이며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은 그 시점에서 F로 시작할 것이다. 그 과목의 성적은 이렇게 시작된 점수에서 계속 누적돼 새로이 평균을 내게 된다. 학생들은 과목별로 자신의 성적을 알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교사가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첫 몇 주에 좋은 성적을 유지한 학생은 시험을 한 번 잘못 본다고 해도 좋은 성적에서 약간의 변화를 가지게 되지만, 몇 주만에 나쁜 성적을 받

은 학생은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아도 성적에 있어서는 큰 발전을 볼 수 없다. 점수는 학생이 공부한 결과지만 반대로 점수가 자녀의 자긍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첫 몇 주간의 성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첫 몇 주 동안 성공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준비가 중요하다. 새 학기에 자녀가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개학 직전

▶개학 1~2주 전부터 온 가족의 취침 시간과 기상시간을 학교 시간에 맞춘다.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방학 때보다는 일찍 일어나야 한다.

▶숙제가 끝났는지 점검한다.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슬립오버 등을 하거나 함께 플레이타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검하고 함께 개학 준비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개학 준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준비물을 챙긴다.

▶새 학기를 맞는 자녀의 불안과 기대를 이해하고 자녀에게 쓸데없는 갈등이나 언쟁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녀가 방학 중에 예습을 하지 않



[이미지 투데이]

았더라도 개학 직전에 간단한 예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교과서를 새 학기에 받는 경우에는 주변 학원이나 선배 등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 한 개 챕터 정도 미리 읽어보도록 한다.

▶과목별 충분한 예습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전에 어려워했던 과목을 복습하도록 돕는다.

▶학교의 웹사이트를 방문, 먼저 읽어보도록 한다. 간혹 학교에 따라서는 부모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새 학년의 모든 과목 이름, 교사 이름 등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

#### 개학 직후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자녀에게 친구들과의 만남 자리를 마련해주라. 몇 월 몇일 친구를 초대해서 3시간 정도에 끝날 수 있는 것으로 친구를 대접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집에서 엄마가 만든 저녁이나 다른 간식이나 영화 관람 등 자

녀가 원하는 것으로 학기 시작 후 빠른 시간 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자리를 갖도록 하라.

▶자녀와의 대화가 열렸는지 확인하라. 예를 들면 과목별로 교사의 이름, 과목별로 친한 친구의 이름, 교실의 위치, 심지어 둘째 시간에서 세째 시간으로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라커의 위치는 어디인지 정도를 부모가 알고 있다면 자녀와의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는 것이다. 모른다면 문제가 있으니, 소통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첫 주에 점검할 것은 과목별로 바인더가 준비되어 있고 유인물이 그 안에 정리되어 있으며 학기 전체를 요약한 실라버스나 과제물을 정리한 표, 숙제를 돌려 받은 것, 클래스 내에서 노란 것이 꼽혀 있는지를 학부모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장병희 기자

▶2면 '개학 준비'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내용**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근골격계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통증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보스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Q
1. What is your GPA, SAT, or ACT score?
  2. What extracurricular activity related to your major did you excel in the most?
  3. What aspect of your college application did you focus on the most?
  4. What were your criteria for choosing a university?
  5. If you could go back four years, what kind of high school experience would you like to have?
  6. Is there anything you regret or wish you had done differently during the college application process or high school?
  7. Do you have any advice for younger students?
  8. If you imagine yourself 10 years from now, where and what do you see yourself doing?
  9. How did you manage your busy schedule?

## “Joining School Clubs Provides a Variety of Options for Future Pursuits”

A

1. GPA 4.8. SAT 1560
2. I excelled most in robotics. I became captain of my First Robotics Competition team after self-studying electronics and programming. Because of my background in computer science, I was able to learn these concepts a lot faster than others.
3. I focused mostly on organization to ensure that everything I worked on was readily accessible. Because I applied to more than twenty colleges for both the early action and regular decision periods, I needed a reliable system for keeping track of the countless essays I had to write. I created a mega-sheet of all of the colleges and their essay



Jacob Kwon  
North Hollywood Highly Gifted Magnet UC Berkeley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s)

prompts so I could identify which ones I could reuse across multiple schools.

4. Everyone's criteria will be different, but for me, I wanted a university that was close to

home and could provide the best education for my major. I wanted a more urban setting so I could go to many places near campus without having to drive too far.

5. Four years ago was when the pandemic started so I definitely missed out on the typical transition from middle to high school. Going virtual meant one less year of developing friendships and getting to know the school.
6. I don't regret my college application process since I believe I did the best I could have done. There were a lot of factors that I couldn't control during this process, so I didn't feel too bad when decisions started coming out.

One thing I wished I could have done in high school was to join more clubs. I think clubs are a great way to explore the many sides of the school campus and talk to people outside your bubble. You don't necessarily have to stick with all these clubs or fully devote your efforts to each one, but it ensures that you have many options to choose from on the things you want to pursue later on.

7. Have a good grasp on who you are, where your interests lie in, and what you firmly believe in. As you encounter countless essay prompts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it's crucial that you can clearly explain to each school what about you aligns with their

values Research your colleges extensively.

8. In ten years, I imagine myself working in a medical device company, developing cost-effective methods of medical imaging for robust diagnosis. I've always wanted to use my passions in technology to help people and create positive change for the world.
9. I relied mostly on task apps like Microsoft To Do and the Reminders app on my Iphone. You lose track of a lot of things as you start college applications, so it's important to stay organized and aware of what's going on. I reinforced the habit of creating a daily task list that was clear and not too overbearing.

▶ 1면 '개학 준비'에서 이어집니다



▶ 학기 초에 자녀의 친구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고, 학교에서 그 친구들의 인사를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 특히 고교생의 경우, 교내 클럽을 찾아야 할 경우가 있다. 가급적 정보를 많이 얻어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에 있다.

구독 신청 703-281-9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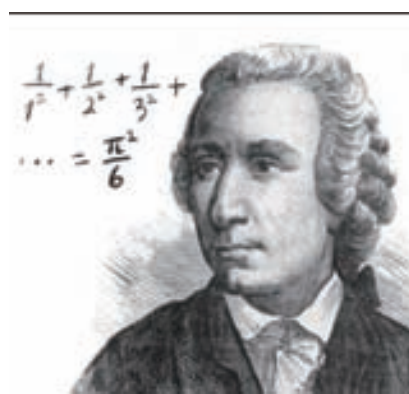
이우영의 과학 산책

### 바젤 문제, 직관의 빛과 그림자

직관은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근거 없는 확신을 주어 혼란을 부추기기도 하고, 논리의 벽을 뛰어넘는 창의성을 주기도 한다. 18세기에는 수학에서 직관이 난무했다. 당시 수학자들은 17세기에 발견된 미분법의 놀라운 응용성에 매료되어 직관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엉터리 논문을 양산하였다. 이런 불합리한 직관을 바로 잡는 연구는 그 후 100년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시기에 직관의 화신이 나타났다. 바로 스위스 바젤 출신 수학

자 레온하르트 오일러(1707~1783)였다. 그의 직관은 남달랐다. 그중 이런 일도 있었다. 17세기 중엽에 자연수 제곱의 역수의 (무한)합을 구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흔히 '바젤 문제'라 불리는 것이다. 80년 이상 당대의 내로라하는 수학자들이 바젤 문제에 도전하였지만 모두 좌절했다. 그런데, 오일러가 1735년에 그 답이 원주율의 제곱을 6으로 나눈 값이라고 발표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의 값은 그 전에 나온 모든 근사값을 망라했다. 그때 그의 나이 28살, 오일러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오일러가 바젤 문제를 푼 비법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직관이었다.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바젤 문제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는 '유한이든 무한이든 다를 바 없다'는 유아적 논

리였으니, 당시 학계가 고개를 가우뚱한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산드라의 예언'이 재현되었다. 모두 애써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오일러의 직관은 적중했다. 6년 후, 그는 엄밀한 증명을 세상에 알려 모든 의심을 해소했다. 오일러를 보면, 직관이 창의성의 원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직관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할 수밖에. 아이러니하지만, '직관적으로'라는 말을 들을 때 느끼는 두 감정, '기대'와 '의심'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도 우리의 직관이니, 직관은 참 사랑스럽고도 고약한 존재이다.

고등과학원 HCMC 석학교수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PENDING**

**\$875,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렌트 \$3,200**

방3, 화2.55, 차고1, 전체마루 한인 커뮤니티센터근처, 굿 로케이션, Move-in Ready

**\$880,000**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 & 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1,250,000**

방 4/ 화 3.5/ 차고2, 코너집, 굿 로케이션, Many Upgraded, Library, Recreation Room, 아름다운 정원, 주인이 잘 관리한 집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대학수학능력시험을 93일 앞둔 올해 수험생들은 수능 영어 시험에 대한 걱정이 크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온다.

한 수험생은 “6모(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3등급 맞고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세계 왔다. 방학 때 ‘빡세게’ 공부하려는데, 어떤 강사님이 잘 가르치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수험생들이 ‘6모 현타’를 얘기하는 건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90점 이상) 비율이 1.47%(5764명)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역대급 불영어’ ‘용암 영어’라는 별명이 붙은 어려운 영어 시험이 9월 모평과 수능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휩싸인 것이다. 1%대 1등급 비율이 나온 건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평가원이 출제한 22번의 시험(6·9월 모의평가 포함) 중 처음이었다.

이후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는 불영어에 대비한 수업이 개설되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 과도한 사교육을 막기 위해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가 다시 수험생을 혼란과 고민에 빠트리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변별력에 치중해 오던 수능 영어가 지향점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제 당국은 “수험생들이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된 수능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었다. 9월 모평 때는 학생 수준과 과목 특성을 고려해 출제하겠다”(김미영 평가원 수능본부장)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나는 작년 이후 평가원 말은 아무것도 안 믿음”이라는 댓글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6월 모평은 수능 영어 시험이 변별력의 뒷에 걸렸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진단하기 위해 중앙일보는 6월 모평 영어 문제 4개를 영어 원어민 2명에게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다. 4개 문제(29, 31, 34, 36번)는 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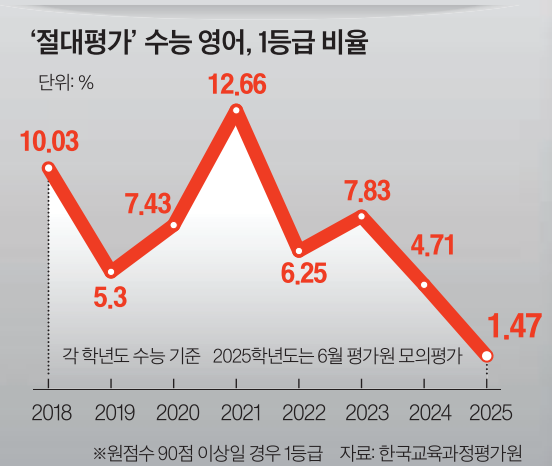


## “이 시험 잘보면 영어 잘하나” 시험 위한 시험된 수능영어

이런 일을 겪은 후, 어렵게 풀린 것은? T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than reviewing the answer comes from the psychologist R. A. Bjork's concept of desirable difficulty. More difficult retrieval leads to better learning, provided the act of retrieval is itself successful. Free recall tests, in which students need to recall as much as they can remember without prompting, tend to result in better retention than cued recall tests, in which students give hints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Cued recall tests, in turn, are better than recognition tests, such as multiple-choice answers, where the correct answer needs to be recognized but not generated. Giving someone a test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something improves retention less than giving them a slight delay, long enough so that answers aren't in mind when they need them. Difficulty, far from being a barrier to making retrieval work, may be part of the reason it does.

\* retrieval: 불러오기 \*\* retention

어법이 틀린 단어를 고르는 6월 모의평가 문제. ‘과거 유형의 문제’ ‘정답도 맥락상 뜻이 통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와 강사 4명이 ‘가장 어렵거나 답을 찾기 어려웠던 문제’로 선택했다.

20여 년을 미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거주한 뒤 현재 한국에 사는 A씨

(28)는 두 문제를, 미국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군은 한 문제를 맞혔다. 이들은 “선지가 헛갈리게 출제돼 답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문제를 다 맞힌 사람이 대학에 가면 영어

로 말하거나 원서를 잘 읽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어법이 틀리게 쓰인 단어를 고르는 29번 문제는 ‘시험만을 위한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B군은 “어법에 틀렸다

가 있다. 이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 ▶대학 논문은 고교 리포트보다 월등해야 한다=대학 과제 및 리포트는 분석과 리서치를 요구한다. 어떤 이슈를 나눠 스스로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물론 자료와 기타 사용된 학술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고교시절의 과제보다 훨씬 세밀해야 하고 위키피디아를 보여주는 서머리, 구글 검색결과, 신문 잡지보다 훨씬 나아야 한다. ▶신입생 때 전공을 정하지 마라=대학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전공을 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는 사실 학생들이 바로 공부에 몰입하기를 바라고 학사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프리메디나 음악, 외국어 같은 것은 빨리 전공을 결정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는 정답도 맥락상 뜻이 통했고 실제 말할 땐 크게 문제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C강사는 “최근 수능 경향이 아니라 특정 동사의 세부 기능을 묻는 과거 유형 문제”라고 평가했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36번 문제에 대해 강사들은 “문제 자체가 어려웠다 기보다는, 문장의 옳은 순서를 고르는 유형의 문제에서는 여태 1번이 답이었던 적이 없어서 학생들이 정답을 선택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분석을 내놨다. 이 문제의 오답률은 88.5(EBS)~91.5%(종로학원) 수준이었다. 반면에 그런 편견이 없는 미국인들은 이 문제를 틀리지 않았다. B군은 “답이 명확했다”고 평가했다. 정답 고르기에만 치중한 한국 학생들의 문제 풀이 방식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수능 영어가 상위권 변별에 치중하며 소수의 고난도 문제를 내는 방식에서 고난도 문제를 다수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윤희태 영동일고 영어 교사는 “70점 이상(3등급) 학생 누적 비율이 20%가 안 된다는 건 총 45문항 중 2점짜리 문제 35개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매력적인 선지’로 오답을 유도하는 사례도 늘었다. 김수연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는 “예컨대 미국의 객관식 시험은 오답이 확연히 티가 나고 정답이 상식에 부합하는 식이다. 그러나 수능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만 틀린 보기가 많다”고 했다.

신동일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절대평가는 상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평가 준거를 명확히 제시한 뒤 이를 충분히 학습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시험이어야 하는데, 다양한 내외부적 압박으로 인해 출제진이 변별력에 강약을 주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서지원 기자

## 1주일에 최소 45시간 공부해야

### 대학 신입생이 알아야 할 7가지

신입생들이 대학과 대학생활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전문가 조언을 살펴본다.

▶클래스를 장악하자=학교가 선정한 클래스에 국한돼 수강할 필요는 없다. 단지 어떤 코스를 선택했을 때 자신의 수준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너무 높은 수준의 수업을 선택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어떤 수업을 선택했든 수업은 모두 들어가야 하며 어떤 교수에게 듣게 되는지도 알아야 한다. 한 코스에 여러 명의 강사가 있

을 수 있다.

▶수업은 빠지지 마라=고교와 달리 대학 교수들은 한 과목을 30~40번을 강의한다. 만약 몇번이라도 빠지면 중요한 것을 빼먹을 수 있다. 빠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생각보다 더 많이 공부한다=해야 될 공부는 성실하게 해라. 교수나 TA는 과제나 논문 마감일을 알려줄 수는 있다. 하지만 기한이 넘도록 제출하지 않는다고 채근하지 않는다. 공부의 혼자는 해라.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업 준비에 학생들은 주당 평균 15시간을 사용한다. 그런데 교수들은

수업 1시간당 2시간의 준비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수업시간이 주당 15시간이면 30시간은 예습에 써야 한다. 그러면 1주일에 45시간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1주일 내내 공부한다고 쳐도 하루에 4시간은 예습에 할애해야 한다. 생각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시험은 샘플링이다=대학 학부의 시험은 포괄적이지 않다. 수업시간에 다룬 모든 토픽과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대신 대표적인 몇가지를 선택해 시험에 반영한다. 교수에 따라서는 몇가지 이슈에 대해서 심층적인 면을 보고자 한다. 시험을 준비하려면 낱알식도로 모든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중요 포인트를 상세하게 공부할 필요

가 있다. 이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

▶대학 논문은 고교 리포트보다 월등해야 한다=대학 과제 및 리포트는 분석과 리서치를 요구한다. 어떤 이슈를 나눠 스스로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물론 자료와 기타 사용된 학술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고교시절의 과제보다 훨씬 세밀해야 하고 위키피디아를 보여주는 서머리, 구글 검색결과, 신문 잡지보다 훨씬 나아야 한다.

▶신입생 때 전공을 정하지 마라=대학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전공을 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는 사실 학생들이 바로 공부에 몰입하기를 바라고 학사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프리메디나 음악, 외국어 같은 것은 빨리 전공을 결정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다. 전공과 관련된 몇 개의 수업을 들어보고 결정하라. 학위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중 하나는 잘못된 전공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10~12코스는 이렇게 쓰인다.

▶교수는 학생의 성공을 원한다=교수직은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하거나 연구실에서 연구만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다. 교수도 가르치는 직업이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도록 자신의 시간을 투자한다. 논문 작성준비나 시험준비를 돕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한 학기에 한번은 교수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워라. 교수가 연구실에 있을 때 찾아가라.

장병희 기자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적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DC 건물 리스팅 하실 건물주 분들!

DC 창고 <b>SOLD</b> \$2.5M DC, NoMa Metro 상권	DC 사당센터 <b>SOLD</b> \$2.4M DC, Capital Hill 지역	DC 단독건물 <b>SOLD</b> \$1.5M Benning Rd. 개발지역	DC Mixed-Use <b>SOLD</b> \$1.6M Capital Hill 지역	DC 사당센터 <b>SOLD</b> \$4.5M Popeyes, 연인업 \$32만	DC NW 아파트 <b>SOLD</b> \$1.5M Metro 상권, 5 유닛
DC Georgetown <b>SOLD</b> \$1.5M Retail / Residential	DC H Street <b>LEASED</b> 단독건물 Union Station	DC Warehouse <b>SOLD</b> \$6.8M 67,000sf, Industrial	DC Warehouse <b>SOLD</b> \$5.8M 56,000sf, 창고 60에이커	DC Warehouse <b>SOLD</b> \$3.6M 냉장 / 냉동고, 창고	<b>for SALE</b> \$1.8M DC 3 유닛 주상복합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 조기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조기 전형 지원시 재정보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5~2026 학년도 대학 입학 지원을 준비 하는 학생들의 경우 11월 1일이 마감일인 조기 전형(Early Admission)을 준비하고 있다면 학비 재정 보조 신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한다. 지원 하려고 하는 학교의 웹사이트를 모두 방문 해 보고 재정 보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립 학교의 경우 CSS PROFILE을 제출 하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제출 마감일은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조기 전형의 경우 11월 1일 또는 11월 15일까지 제출 해 주어야 하는 학교도 있고 내년 3월 까지 재정 보조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학교가 있기도 한다.

특히 지원 하는 대학 중에 학교 고유의 재정 보조 신청 양식을 요구하는 학교는 없는 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면 마감일 내로 제출 할 필요가 있다.

사립 학교의 경우 보통 12월 15일까지 조기 전형의 합격자 발표와 더불어 합격한 대학들로 부터 예상치 이기는 하지만 학비 재정 보조 내역서

(Financial Aid Award Letter)를 받게 된다. 이 내역서를 통해 학생별로 받게 되는 재정 보조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얼리 디시전에 합격한 경우는 보다 신중히 이를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예상치의 재정 보조 내역서를 통보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정보조 신청 절차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외에 대학에 따라서 요구 할 수도 있는 서류들, 예를들어 Business & Farm Form, Non-Custodial Form, Verification Form, Non Tax File Statement Form 등을 각 대학의 Financial Office로 보내 주어야 한다.

또한 주의 해야 할 것은 칼리지 보드의 IDOC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들은 이러한 서류 들을 대학의 Financial Office가 아닌 IDOC으로 직접 보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분실 할 수도 있으니 IDOC 서비스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자.

보통 CSS PROFILE을 Submit 하게 되면 학생이 신청한 대학 들 중 IDOC에 가입 되어 있는 대학들의 List를 자동으로 알려 주며 학생 고유



줄리 김  
탑에듀피아 대표

의 IDOC Number와 함께 제출 해야 할 서류 들을 알려준다. 이 중 대표적인 서류가 2025~2026년도에 입학 하는 학생의 경우 부모의 2023년 Tax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Tax 보고서 상에 첨부되는 Schedule 들이다. 이렇게 대학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대학에 보내 주게 되면 대학은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CSS PROFILE에 작성한 2023년 Tax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해 최종적인 재정보조 내역서를 학생들에게 보내 준다.

▶질문 얼리 디시전의 경우 혹시 재정보조가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기 전형에 있어서 특히 얼리 디시전 (Early Decision), 즉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학교에 등록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하는 조기 전형 형태인 얼리 디시전의 경우 재정 보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지 궁금 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얼리 디시전 에 합격해서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았는데 너무 조금 보조를 받게 되는 경우 그 학교에 등록을 하거나 재정 형편이 그것을 허락치 않고, 또 재정 형편상 등록을 하지 않거나 꼭 해야하는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신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학 한 곳에 합격한 학생이 일반 전형(Regular Admission)에서 여러 대학에 합격한 학생보다 학비 재정 보조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하다. 그리고 문제는 얼리 디시전의 계약을 "빌미"로 재정 보조를 더 조금 주면 어떻하냐는 학생 가족의 불안감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얼리 디시전이 아니라 무조건 재정보조가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생각은 잘못 된 것이다. 만약 얼리 디시전에 합격한 경우라도 재정보조가 너무 적어서 부모가 부담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취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은 대학 당국에 Appeal을 통해 재정 보조 받는 액수가 어떻게 될지를 다 채울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어필하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재정 보조액을 늘려 주거나, 아니면 어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 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즉 학교에서 제시한 최종적인 재정 보조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보조를 근거로 얼리 디시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부족한 재정 보조만이 얼리 디시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재정 형편이 문제가 된다면 조기 전형으로 신청하지 말고 정기 지원 때 여러 학교를 지원해서 재정보조 패키지를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학교로 등록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문의 : 703-576-7803, Email : topedupia@gmail.com

## 대입 들여다보기

# 아이비리그 끈끈한 동문 네트워크...평생 유대관계, 후배 성공 가이드 역할

2023~2024년 대학 입시 사이클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에게 기록적인 해였다. 특히 예일대와 다트머스 칼리지는 과거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우수한 학업 환경과 드높은 명성이 주는 권위, 그리고 캠퍼스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아이비리그와 톱 대학에 끌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자 대비 수익(ROI)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에 다니기 위한 비용이 해마다 상승하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는 아이비리그 졸업생이 갖는 명성이 그만큼 높은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매년 일정한 숫자의 신입생을 뽑는다.

지원자 수는 늘어나는데 합격생 수는 정해져 있으니 갈수록 합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프린스턴대의

한해 신입생 규모는 1370명 수준이지만 매년 3만5000명 이상이 원서를 제출한다. 아이비리그 학생 대 교수비율은 합격을 만듦이나 낮다. 브라운대의 평균 학생 대 교수비율은 6대 1이다. 이 말은 합격생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수들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교수들이 학생 개인에게 주목하기 이상적인 환경이다.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얻는 또 다른 혜택은 대학이 '부자'라는 것이다.

막대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이들 대학은 랩, 방대한 도서관 자료, 스튜디오 공간, 광범위한 과외활동 옵션 등을 재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아이비리그 캠퍼스의 과외활동 영역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대하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에만 500개 이상의 학생 클럽이 존재한다.

모든 아이비리그는 강력한 동문 네

트워크로 유명하다. 졸업한 동문들도 평생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후배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예를 들어 예일대의 직업 전략 오피스는 재학생들이 인턴십을 찾을 때 동문들과 고용주, 기부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재학생들이 네트워킹 기회를 다질 수 있도록 대학이 지원하는 방식은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이 비슷하다. 그래서 합격생들은 자신이 찾기를 원하면 대학이 지원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마도 수많은 학생들이 아이비리그에 마음이 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졸업생들의 평균 소득일 것이다. 이력서에 아이비리그 학위를 적는다면 첫 직장이나 인턴십을 구할 때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2023~2023년 '글로벌 대학 고용 가능성 랭킹' 에서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예일대는 전 세계 대학 중 탑 10 안에 들었다. 또한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도 유엔을 제외하곤 탑 100에 랭크됐다.

이처럼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아이비리그 졸업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UNC)이나 테네시주 내슈빌의 밴더빌트대 등은 가치가 높지만 교육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기관으로 알려졌다. MIT와 북가주 샌타클라라대 역시 졸업생의 미드커리어(졸업 10년 후) 평균 연봉이 톱10에 랭크됐다.

1950년 말에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메리트 스칼라십을 제공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

아이비리그 합격생들은 모두 메리트 스칼라십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믿기에 그중에서 누구는 장

학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제도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니드 베이스 재정 보조를 받기에는 가구 소득이 너무 높은 중산층은 아이비리그의 교육비용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외부 스칼라십이나 펀딩을 받지 않는 한 말이다.

다트머스 칼리지는 학비와 모든 관련 비용을 포함해서 학교를 다니는 데 연 9만1000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에 비해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은 인스테인트 학생의 경우 약 2만7000달러, 타주 학생의 경우 6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 아이비리그이든 아니든 지원 또는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 목표와 가정의 재정상황 등에 좌우될 것이다.

여러 대학들의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다.

빈센트 김 카운슬러 어드미션 마스터즈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원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 올여름 극장가, 코미디 웃고 블록버스터 울었다



올여름 손익분기점을 넘긴 한국 영화 '파일럿', '헐스가이즈', '탈주'(왼쪽부터 시계방향)는 가벼운 웃음, 빠른 전개가 특징이다. [사진 롯데엔터테인먼트, NEW,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코미디가 올여름 극장가를 평정했다. 배우 조정석의 여장 코미디로 입소문난 영화 '파일럿'(7월 31일 개봉), 오컬트 호러를 가미한 B급 코미디 '헐스가이즈'(6월 26일 개봉)가 나란히 손익분기점을 넘어 흥행 중이다.

올여름 최고 순제작비(185억원)의 대작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이하 '탈출'), 비행기 납치 실화를 그린 '하이재킹' 등 스펙터클로 무장한 블록버스터들의 저조한 흥행성과 대조적이다.

1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파일럿'은 개봉 9일 만인 지난 8일, 올여름 한국영화 중 최단 기간에 손익분기점(220만명)을 돌파했다. 이어 10일 2주차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누적 관객 수 276만명을 기록했다.

'파일럿'은 말 실수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스타 파일럿 한정우(조정석)

'파일럿' '헐스가이즈' 흥행몰이

가 여장 후 여성 파일럿 채용 쿼터로 재취업에 성공하며 벌어지는 소동을 그렸다. 코믹 재난영화 '엑시트'(2019)로 942만 흥행을 터뜨린 조정석과 한선화·오민애 등 조연 배우들의 맛깔난 생활 연기가 타올 높은 웃음을 선사한다. 로맨틱 코미디 '가장 보통의 연애'를 연출한 김한결 감독의 두 번째 상업영화다.

순제작비 49억원의 저예산 영화 '헐스가이즈'는 최근 뜸했던 호러 코미디를 내세워 손익분기점 110만명을 넘었다. 10일까지 전국 66개 스크린에서 누적 170만 관객을 동원하며 개봉 두 달째 장기 흥행 중이다.

신인 남동현 감독의 데뷔작으로, 숲속 폐가에 이사 온 목수 콤피가 협박한 외모로 인한 오해 탓에 연쇄 사망 사건에 휘말리는 과정을 그렸다. 캐나다 원

작 영화의 잔혹 수위를 낮추고 한국식 오컬트를 절묘하게 섞어, "골 때리는 영화"(배우 정우성)로 입소문이 났다. 뒤늦게 찾아보는 관객이 잇따르는 등 호응에 힘입어 2탄 제작도 준비 중이다.

엔데믹 이후 여름 극장가는 목직 한 블록버스터가 장악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외계+인'(1부), 지난해 '더 문'이 흥행에 참패한데 이어, 올여름 '탈출'까지 흥행 부진에 시달리면서 텐트 폴 영화의 무덤이 됐다. 목직한 볼거리, 눈물보다 '가벼운 웃음'이 흥행 코드로 떠올랐다.

코미디 외에는 이재훈·구교환 주연의 탈북 액션 영화 '탈주'(7월 3일 개봉)가 손익분기점(200만명)을 넘겼다. 빠른 전개, 94분의 짧은 상영 시간을 내세운 '시간 순삭(순간 삭제)' 콘셉트로 인기 몰이에 성공해, 지난 6일 올여름 한국영화 중 처음으로 250만 관객을 돌파했다. **나원정 기자**

## 머리 밀고 군부 독재자 된 유재명 "해도 손해 안해도 손해, 도전해봤다"

영화 '행복의 나라' 전상두 역 "그 시대의 야만성 압축한 인물 인물 파악 어려워 처음엔 거절"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인 역할이었어요. '내가 전상두를 해서 뭘 얻려고 했지?'란 생각이 들 만큼 어려웠지만, 배우로서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영화 '행복의 나라'(감독 추창민, 14일 개봉)에서 권력 실세 합수부장 '전상두' 역을 맡은 유재명(51)의 말이다. 1979년 10·26 대통령 암살사건 이후 재판 과정을 그린 이 영화에서 전상두는 "그 시대의 야만성을 압축한 인물"(유재명)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델이지만, 역사 속 인물을 그대로 본뜬 캐릭터는 아니다. 연출을 맡은 추창민 감독에 따르면 "전두환이란 한 사람이 아니라, (당대 군부독재 정권의) 권력자의 간교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다.

8일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만난 유재명은 "전상두가 안개 속 인물처럼 파악하기 어려워 처음엔 거절했다가, 잔상이 남아 출연하기로 했다"고 했다. 비교 대상이 많다는 것도 부담이

될 만한 지점이다. 올 초 '서울의 봄'에선 배우 황정민이 79년 12·12군사반란을 이끄는 광기 어린 '전두환'을 연기했다. '남산의 부장들'(2020)에선 10·26 직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금고 속 금고·현금을 훔쳐 나오는 대통령 심복 '전두혁'(서현우)이다. 다소 코믹하게 그려졌다.

유재명은 "실존 인물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맥락에 맞는 연기를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OK것도 다른 버전으로 연기하길 반복했다. 영화에 10분가량 나오는 전상두의 골프장 장면은 사흘간 찍었다.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는 눈, 뼈뺀 고개, 국민을 깨워지기로 아는 세력들의 오만한 신념에 집중했다"고 한다.

그는 1997년 연극 '서툰 사람들'로 데뷔했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2015~2016)에서 "츄리닝 입고 엉덩춤을 추는 '학주'(학생주임)" 캐릭터로 급부상했다. JTBC '이태원 클라쓰'(2020)에선 장가 회장을 '국민 욕받이' 캐릭터로 탄생시켰다. 최근에는 디즈니+ 방영 중인 드라마 '노 웨이 아웃'에서 흥악범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김국호' 역으로 돌아왔다. **나원정 기자**

## '5연패' 로페스 '3관왕' 바일스... 파리 빛낸 전설들

(레슬링)

(기계체조)



세계 스포츠의 전설적인 스타들이 화려한 '라스트 댄스'로 2024 파리올림픽을 수놓았다.

쿠바 레슬링의 영웅 미하인 로페스(42)는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kg급에서 우승해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단일종목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제까지는 육상 남자 멀리뛰기의 칼 루이스와 남자 원반던지기의 앨 오터, 수영 남자 개인혼영 200m의 마이클 펠프스와 여자 자유형 800m의 케이트 레德基, 요트의 파울 엘스트림, 레슬링 여자 자유형 63kg급의 이초 가오리 등이 기록한 4연패가 최다 연속 금메달 기록이었다.

로페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시작으로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2021년 도쿄 대회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따낸 뒤 은퇴를 선언했지만,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매트로 돌아와 결국 파리에서 꿈을 이뤘다. 그는 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자신의 레슬링화

조코비치 '커리어 골든 그랜드슬램' 제임스, 세번째 금따고 올림픽 은퇴

를 매트 위에 벗어두고 내려와 올림픽 무대에 작별을 고했다.

기계체조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시몬 바일스(27·미국)는 여자 단체와 개인 종합에 이어 도마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3관왕에 올랐다. 2016년 리우 올림픽 4관왕에 빛나는 그는 3년 전 도쿄올림픽 도중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기권해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한 뒤 파리로 돌아왔고, 전성기가 지난 나이에도 여전히 세계 정상급 기량을 뽐냈다.

테니스 레전드 노바크 조코비치(37·

세르비아)는 남자 단식에서 우승해 올림픽 금메달과 4대 메이저 대회(윌리엄스·US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 우승을 모두 해내는 '커리어 골든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앤드리 애거시, 라파엘 나달, 슈테피 그라프, 세리나 윌리엄스에 이어 역대 5번째(남자 선수로는 3번째)로 위업을 달성했다. 또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31세의 나이로 우승한 로저 페더러를 넘어 남자 테니스 단식 최고령 금메달 기록도 갈아치웠다.

농구의 아이콘 르브론 제임스(40·미국)도 파리에서 '명불허전'의 경기력으로 세 번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제임스는 첫 올림픽이었던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 동메달에 그쳐 '드림팀'의 굴욕을 직접 체험한 아픔이 있다. 올해는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해 드림팀을 이끌었다.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랜트, 조엘 엠비드 등 내로라하는 미국프로농구(NBA) 스타들이 그의 마지막 올림픽을 함께 했다. **배영은 기자**



##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 건너편)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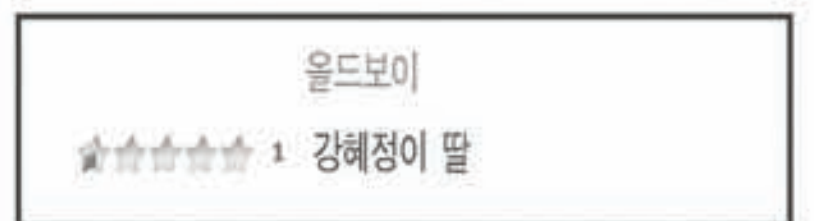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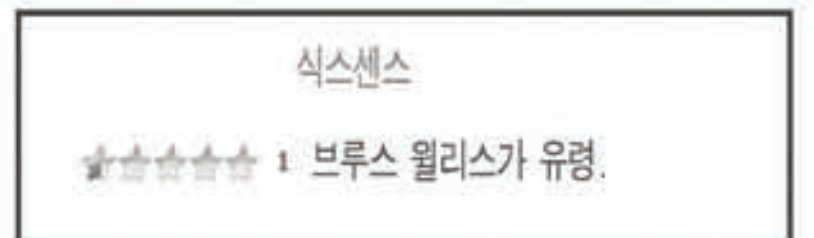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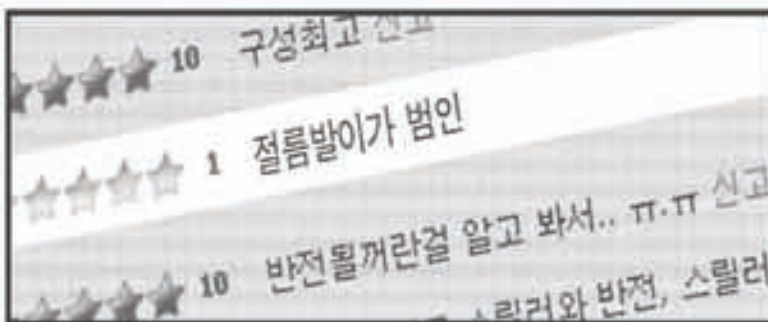
**703.825.2945**

#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범인**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8월  
구  
인  
광  
고

###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 Seafood Carry Out
- Pickup Store(bowie) \$30,000
-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장+1/2

문의  
**301-768-1240**

###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주세요!

###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이름 순서를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한달광고유료계재, 내용보내실곳: kd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 메릴랜드 지역

### 직원 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구합니다. 경력있는보수(커미션), PEPCO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분야의대면방문세일즈경험자, 경력자우대(기본급및경비지원) 초보자세일스트레이닝및 각종 지원 제공(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유,무경력자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 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 병원/한방/덴탈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 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노인분들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가능. 410-961-3012

-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 식당/델리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짜실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 기타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 차정비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사 성실히 일 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류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 싱글/타운방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룸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 이름 메트로근처 싱글룸방 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룸,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8-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엿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 버지니아 지역

#### 구인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Community Service Clerk (Church): Do clerical assistance for the outreach ministry. Reach out for Mongolian communities for Mongolian communities to find out needs for caring. Do administrative coordination for the community service, food distribution and homeless ministries. Visit locations within Arlington County and its BLS area. 40hrs/week, Tue - Sun. Associate degree in business or equivalency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Arlington Assembly of God at 4501 North Pershing Drive, Arlington, VA 22203

애난델.시원한 사무실서 파. 풀타임 근무 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 (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분사 디자인빌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사무실 경험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 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 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유/무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I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자"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사유 없는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파타임  
유경력 역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슨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품**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시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시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알렉산드리아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원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제과**

▶▶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아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네일/마사지**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원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원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세탁/엘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이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스로  
판매.(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스토어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 정비/바디샵**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보유 J-1 (교환교수, 인  
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기타 구인/구직**

버크 테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 PM - 7 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훔알아서해주시분  
(703) 473 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리고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우.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 노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싱글홀 지하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까운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홀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홀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l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mart 옆 \$2,300  
방3, 화장, 유포 (전기별도) 7/1 입주가능  
703-975-0123

스프링필드 싱글홀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장,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잇 모델 타운홀  
방3개, 화장, 2가 각자,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홀(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홀, 방3, 화장, 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홀, 방3, 화장, 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방2, 화장, 2층, Loft, Top Floor,  
택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가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장,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장,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방 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1. 애난데일 한강식당뒤 개인집방 렌트  
화장실/입구별도 9/1일 입주가능  
2. 타이슨지역 개인집 지하방  
703-395-438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 직원 공개채용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 분야 **광고·편집 디자인**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 자격: - 신입 및 경력  
-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가정, 사업체에 만드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www.junk2u.com

571-723-0446

##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냥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http://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mailto: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Katherine: I was thinking about getting the boss a gift for Christmas.  
캐서린: 상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까 생각중이 있어.  
Marilyn: Just you?  
마릴린: 너 혼자?  
Katherine: Well, so far. Does anyone want to go in on this with me?  
캐서린: 음, 아직까진. 나랑 같이 할 사람 있어?  
David: Sure, I'll chip in. How much money?

데이비드: 그럼 나도 돈을 더할게. 얼마야?  
Katherine: I was thinking maybe \$10 from each of us.  
캐서린: 우리 모두 10달러씩 할까 하는데.  
Charlie: We should be able to buy him something nice.  
찰리: 좋은 선물을 살 수 있을 거야.  
Marilyn: I can handle \$10. That's not too much for me.  
마릴린: 나도 10달러는 너네히 낼 수 있어. 그거야 그렇

chip in; 돈을 기부하다, 추렴하다

(Teachers are talking about buying a gift for their boss for Christmas.)

(선생님들이 상사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의논중이다.)

게 많은 돈이 아니지.  
기억할만한 표현  
▶ so far: 지금까지는  
"It's 9:45 and so far I only have two students in my class." (9시45분인데 아직까지 우리 반엔 학생 두 명 밖에 안왔어요.)  
▶ does anyone want to go in on this?: 함께 하실 분 없나요?  
"I'm going to order pizza. Does anyone want to go

in on this with me?" (전 피자 주문할 건데요. 같이 드시고 싶은 분 있나요?)  
▶ I can handle (someone or something): (문제 없이) 다루다 처리하다  
"I have no trouble teaching children. I can handle them."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수월합니다. 아이들 이야문제없이 다루죠.)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열쇠

(1)보수를 받고 복무하는 군인. 외국에서 고용한 외국인 선수 (2)투수. 포수. 야수. 홈런... (4) 어금니가 다 난 뒤 성년기에 맨 안쪽 끝에 새로 나는 작은 이 (6)잡하나 잠수함에서 쓰는 반사식 망원경 (7)음식점에서 배달할 때 요리를 담아 나르는 음식 배달통 (8)간사한 사람. 간사한 짓. 이 ~ 새끼. 그는 뒷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를 치며 돌아다녔다 (10)재물의 힘으로 출세함. □□발□ (12)물건을 얹어 놓기 위해 벽에 달아 놓은 널빤지 (14)옛 문화를 보여 주는 건물이나 터 (16)철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는 물체 (17)등급이나 직위 따위에서 맨 윗자리. ~ 비서관 (18)떡(목)을 가까이 하면 겁이짐.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됨. 어머니는 어렸을 적부터 ~이라며 좋은 친구들과 사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20)무척찌로 김치를 담근, 뿌리가 잔 무 (22)산림에서 나는 물품 (25)노래나 춤의 곡조에 맞추어 흥을 돋을 때 하는 말 (27)자기가 하고도 아니한 체,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태도. ~를 떤다 (28)소위 이상의 군인 (29)노른자가 두 개인 알

세로열쇠

(1)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탄력이 있는 나선형의 쇠줄. 스프링 (2)앞날에 큰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3)원통 모양으로 된 물건의 아가리의 지름 (4)핀란드식 증기 목욕 (5)한글의 둘째 자모인 ㄴ의 이름 (6)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홰바지 (8)제 잇속을 차리기 위하여 교활하게 알랑거리는 신하와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자식. 그 나라는 결국 ~ 때문에 망했다. □□적□ (9)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사람 (11)정보 통신 기기를 설치하여 놓고 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일 (13)넓고 평평한 큰 바위 (14)복을 치는 사람. 판소리에서, 일~ 이명창이라는 말은 복을 치는 사람이 첫째이고, 소리 잘하는 사람은 버금이라는 말이다 (15)풀을 쌓아올려 만든 무덤 (19)검은개. 영양을 돕고 대변을 부드럽게 한다 (21)다리의 윤곽을 나타내는 선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23)끓는 물에 달걀을 깨 넣어서 반쯤 익힌 음식 (24)붉고 물렁하게 잘 익은 감 (25)도장을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그 지문(指紋)을 찍은 것 (26)외국에서 정착하여 사는 중국 사람

스도쿠

	6		3	1		4	9	
						3	8	
3	5	8	7				6	1
	2			5				8
4			2	9				
			6					
9	3		4			8	5	6
	7		9		2	1		
		1	8		5			2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7	6	5	3	8	1	4	9
4	3	1	2	9	6	5	7	8
6	5	8	1	7	4	2	3	9
2	9	7	4	8	6	3	1	5
3	5	1	7	6	2	9	8	4
8	4	9	3	5	1	6	2	7
1	9	2	6	4	7	8	5	3
7	8	3	2	6	5	4	9	1
5	4	9	8	1	3	7	2	6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checkbox"/> EXP. DATE: / month year <input type="checkbox"/>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애틀랜타**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결여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구인**

**Sales Manager:**

Direct sales activities:  
 Bachelor's in Business  
 Admin, or related;  
 40hrs/wk; Apply to  
 3700 Crestwood Pkwy NW,  
 Ste 200, Duluth, GA 30096

**기타 지역**

**구인**

이민생활의 나침판 -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us.srotech.com**  
**charcoal cedar** **진짜가 나타났다**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코리안 컵밥 식당**  
 부부운영 적합  
 건물 3,700sf.  
 주차 20대 가능  
 월매상: \$1만6천  
 가격: \$66만  
 (건물 \$50만/식당 \$16만)  
 몬테나주 Great Falls 지역  
 (406)217-5050

**구인**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박혁박사(하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파이먼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희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에서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러치라 샵**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러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러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솥**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https://www.facebook.com/LandBUuniversal)